

Tel. 213-739-0403

성령께서 이끄시는 화해의 신문

WWW.CHDAILY.COM

E-mail : chdailya@gmail.com

THURSDAY, March 3, 2016 Vol. 520

## 아주사 대부흥 ... 다시 한 번 더



설명회에 참석한 한인교회 지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6년은 아주사 대부흥 110주년  
Azusa Now 다민족 연합기도회  
4월 9일(토)  
LA콜로세움 경기장에서  
오전 7시 30분부터 40분간  
한인 인도 특별순서 마련돼

1906년 아주사 대부흥이 110년이 지난 2016년, 다시 한 번 대부흥을 갈망하는 중보기도자 수만 명이 오는 4월 9일 로스앤젤레스 메모리얼 콜리세움(Los Angeles Memorial Coliseum, 3911 S. Figueroa St. Los Angeles, CA 90037)에서 대형 기도집회를 개최한다.

이 행사를 주최하는 더 콜(The Call) 측은 한인교회들을 이 집회에 초청하고 오전 7시 30분부터 8시 10분까지 40분간 한인들이 인도하는 특별 순서로 배정했다.

더 콜은 지난 2000년 워싱턴 DC에서 수천 명 평년의 금식기도 운동을 시작한 이래 15년간 지속해서 수만 명 규모의 중보기도 집회를 열어왔다.

이 단체 대표 루 임글 목사는 1980년대부터 체 안 목사(Harvest Rock Church)와 함께 사역

하면서 미국의 청년 부흥을 위한 중보기도 운동에 옮겨 왔다.

이 단체는 아주사 대부흥이 110주년을 맞이한 2016년, 그 당시의 부흥을 오늘 이 자리에 다시 일으켜 한다는 뜻에서 ‘아주사 나우(Azusa Now)’란 연합중보기도회를 기획했다.

이 행사는 오전 7시부터 시작 돼 기도와 찬양이 이어지다 오후 4시부터 10시까지 대규모 전도집

회 및 치유집회로 연결된다. 실제로 하루 종일 기도하는 집회라 할 수 있다. 주최 측은 이 중 행사의 첫 시간을 한인들에게 맡기며 한인들이 전체 행사를 이끌어 달라 부탁했다.

지난달 29일 나성순복음교회에서 열린 설명회에 참가한 루 임글 목사는 한인교계에 대한 깊은 신뢰를 나타냈다.

[관련기사 2면에 계속]



1. 일주일 중 가장 신나는 시간  
이를 위해서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보여주느냐가 중요하다.

2. 주제의 핵심 이해시키기  
아이들의 집중력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최고의 효과를 얻기 위한 주제 선별이 중요하다.

3. 구체적 물건 통한 핵심 설명  
아이들에게 투명한 액체가 담긴 컵 두 개를 보여 주면서 말한다. “나는 식초고 다른 하는 물이 예요”

4. 매주 새로운 시도하기  
매주 다양한 대회와 성경 퀴즈 게임을 준비하고 상을 준다. 매우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다.

5. 동일한 메시지의 핵심  
메시지의 핵심은 주제와 상관없이 똑같을 때가 많다.

6. 하나님 사랑에 중점두기  
복음을 전할 때는 하나님의 사랑에 중점을 둔다.

7. 종교 외의 것도 다루기  
글쓰기와 일기, 사회성 지도 등 종교 이외의 것도 가르친다.

## “남가주 한인교회 세계 선교에 큰 도전 줄 것” 한인세계선교대회 … 제8차 KWMC선교대회 앞두고 준비상황 보고회 가져



제8차 KWMC 대회를 앞두고 준비 상황을 보고하는 기자회견이 1일 은혜한인교회에서 열렸다.

자회견에서 고 목사는 “선교사들의 요청에 의해 행사 장소를 중서부에서 서부로 옮기게 됐다. 익숙한 시카고를 떠나 미답의 황무지와 같은 서부에서 행사를 여는 것은 우리에겐 일종의 도전과 같다. 그러나 그 동안 행사를 열던 휴튼 대학교보다 최대 수용 인원 및 숙박 시설 등 여려 가지 조건은 더 좋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행사는 전문성을 갖춘 훌륭한 강사들이 전체 집회와 각종 선택 강의 등을 이끌게 된다”면서 “선교에 대한 강력한 도전을 받을 것”이라고 참석을 권했다.

이 대회 대표회장 한기홍 목사도 교회들의 적극 참여를 당부했다.

[관련기사 3면에 계속]

**나라정비**  
나라오토덴트  
유럽차전문점  
 SMOG CHECK  
**323.734.4881** 월~금: 8am~6pm / 토: 8am~5pm 1201 S.Western Ave, LA 웨스턴과 12가

**타이어 대리점**  
**GOOD YEAR**  
범퍼·도어·바디복원·무료견적·Rent Car

**아이비 유학**  
3·7·21 재능캠프  
Shelby Kwon  
Director  
적성검사를 통한 진로 선택의 지름길  
재능 계발: 토랜스, 얼바인 Class  
(Verbal, Visual, Logical, Creative, Physical, Emotional)  
USA Tel:(951) 383-5583  
Tel:(949) 329-8222  
Email:shelby.moon65@gmail.com  
[www.MyIvydream.com](http://www.MyIvydream.com)

## 국제 23기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

# “평신도를 깨운다”

주강사 오정현 목사 (사랑의교회 담임)  
노창수 목사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

강사 강명옥 전도사, 박주성 목사, 김홍장 전도사

일시 2016년 4월 18일(월) - 4월 23일(토)  
장소 남가주사랑의교회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대상 현 이민 교회 담임목사 및 부교역자  
(담임목사 참가시 부교역자도 참석 가능)

등록서류 신청서, 주보, 사진 1매  
등록마감 2016년 3월 21일(월)  
등록비 \$390(숙식 및 강의안 포함)  
등록처 국제제자훈련원(T. 714 635 3000)



이날 참석한 WEA와 한국 교계 지도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 “한반도 평화통일 위해 기도해 달라”

WEA세계지도자대회 … 2월 29일~3월 5일, 서울서 열려

세계복음연맹(World Evangelical Alliance) 세계지도자대회(International Leadership Forum 2016·이하 ILF) 개회예배가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을지로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WEA 대표단과 대한민국 교계 및 각계 지도자들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WEA가 주최하고 WEA세계지도자 한국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WEA ILF는, 개회예배를 시작으로 ‘Partners in the Gospel(복음 안에서의 동역, 빌 1:4-6): Build His Church’라는 주제 아래 3월 5일까지 6일간 진행된다.

전 세계 WEA 관련 지도자 120여 명(국제이사 7명 포함)이 참석하는 ILF는, 매년 한 차례 모여 사업 경과 보고 및 평가를 진행하고 향후 방향성을 심도 있게 논의하게 된다.

특히 ‘지상대사명’(Great Commission)의 완수와 긴급한 해결이

요청되는 국제적 이슈들을 다루고 있다.

주요 행사로는 이미 진행된 2월 27~28일 사전회의와 이날 개회예배 및 환영만찬 이후, 3월 4일까지 분과별 전략회의가 진행된다. 3월 2일 판문점(DMZ) 견학, 3일 국가조찬기도회 참석, 4일 폐회 오찬 등의 일정도 있다. 최종적으로는 지도자대회 결과물을 문서로 채택·발표한다.

이강평 목사(WEA 총괄본부장)의 사회로 드린 예배에서 이영훈 목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가 환영사, 유영식 목사(기독교한국침례회 총회장)가 대표기도, 이경숙 회장(국가조찬기도회 회장)이 성경봉독한 후 김장환 목사(극동방송 회장)가 ‘복음의 능력(마 28:18-20)’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영훈 목사는 “WEA ILF 기간 동안 전 세계에서 참석한 지도자 여러분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기

도해 주시길 바란다”며 “이 대회를 통해 평안의 매는 줄로 하나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게 되길 희망하고,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모두에게 임하길 바란다. 한국 모든 복음주의 교회들은 이번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기도와 후원을 해 왔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대독한 메시지를 통해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깃들고 남북한 주민 모두가 행복한 통일 시대를 열어나갈 수 있도록, 세계교회가 기도해 주시고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WEA에서는 총무 에프라임 텐데로 감독(Efraim Tendero)과 국제이사회 의장 엔다바 마자바니 목사(Ndaba Mazabane), AEA 사무총장 리처드 히웰 박사(Richard Howell) 등이 감사를 전했다.

이대웅 기자

## “아주사 대부흥 다시 한 번 더”

Azusa Now 다민족 연합기도회 통해 …플러드LA 전도 집중할 것

[1면으로부터 계속] 루 잉글 목사는 “금식과 기도로 부흥한 한인들을 보면 질투를 느낄 만큼 부럽다”면서 “미국에서의 부흥은 이제 선택의 문제다. 금식과 새벽기도의 은사를 가진 한인들이 그 은사를 사용해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인교회 지도자들은 1월 20일 메모리얼 콜리세움에서 열린 설명회에서 다민족 교계 지도자 520명과 함께 행사를 소개받고 긴급하게 한인 준비 위원회를 구성하게 됐다. 당시 이 설명회에 참석한 한인교회 지도자 40여 명은 미국의 부흥을 위한 기도회에 참여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박희민 목사를 명예대회장, 신승훈 목사를 대표대회장, 진유철 목사를 상임대회장, 김영길 목사, 박성규 목사, 민승기 목사, 엄규서 목사 등을 대회장으로 준비위를 구성했다.

박희민 명예대회장은 “2004년 빌리그라함 LA 전도대회 때부터 지난 11.11.11 로즈볼 다민족 기도회 등

한인들의 기도 열정이 주류사회에 깊은 인상을 주었다. 이번에도 다민족 중심 기도회에 한인들이 초청받았다”고 설명했으며 이성우 준비위원장은 “이 행사에서는 한인들이 찬양을 인도하고 30분간 6명의 목회자가 나와 기도회를 인도하게 된다. 그러나 이 기도 시간에 아주사 대부흥 110주년을 기념하며 한인교회 지도자 110명이 단상에 나와 중보기도에 힘을 모아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메모리얼 콜리세움의 공식 수용 좌석은 9만3천여 석이지만 주최 측은 최대 수용인원을 12만 명으로 잡고 기도하고 있다. 현재까지 3만8천 명이 참가 신청을 한 상태다. 한인 준비위에 따르면, 한인들은 새벽기도회를 각자의 교회에서 간단히 마친 후, 교회 버스나 카풀로 이동해 이 행

사에 참여할 예정이다. 한인 준비위는 3월부터 교회들에 한글과 영어로 된 포스터와 전단을 배부하고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다민족 연합기도회에 한인들이 또 다시 초청받은 것과 그 중에도 행사의 시작 부분을 맡게 된 것은 주목할 일이지만, 이 행사의 중요한 초점은 전도에 있다. 더 끝은 오는 4월 9일 기도회 행사 가운데 오후 4시부터 전도집회 형식으로 기획해 놓았다. 그리고 부활주일 다음날인 3월 28일부터 4월 8일까지 플러드 LA(Flood LA)라는 총력 전도 활동을 도시 곳곳에서 펼친다. 이때 전도된 이들을 아주사 나우에 초대해 결신케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행사를 알리는 설명회에는 정시우 명예회장, 이주철 총무 등 남가주교협 관계자들, 민승기 회장, 신현철 총무 등 OC교협 관계자들, 최문환 장로, 김인화 간사 등 미주성시화운동본부 측 인사들, 박종술 간사, 이기송 간사 등 KCCC 인사들, OC기독교 평신도연합회 윤우경 회장, 청년부 흥운동 HYM의 더글라스 김 대표, 남가주한인목사회 전 회장 정종윤 목사, 라인인더샌드 다민족 기도회 한인 코디네이터 출신의 전두승 목사, KCCD의 임혜빈 대표, 팜스프링스한인교회 최승목 목사 등 50여 명의 한인 지도자가 참석했다.

진유철 상임대회장은 “한국과 미국의 역사를 변화시킨 평양 대부흥이나 아주사 대부흥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게 될지 그 당시에는 알지 못했을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한 사람의 순종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섬기고자 한다”고 했다. 김준형 기자

## “부산 호산나교회, 유진소 목사 청빙 가결”



부산의 대표적 대형교회인 호산나교회가 지난 달 28일 공동의회를 열고 새 담임 유진소 목사(ANC 온누리교회)를

청빙을 가결했다.

유 목사는 연세대 철학과와 장신대 신대원을 거쳐 서울 온누리교회 부교역자, 두란노서원 원목과 사역팀 담당 등으로 사역했다.

호산나교회는 지난 2011년 최홍준 원로목사의 후임으로 흥민기 목사가 부임했다. 그러나 흥 목사는 개인사정으로 지난해 사임했다.

## SAS 인가컨설팅

비영리단체, 선교회, 연구소, 종교특례 대학 및 일반대학 설립/인가 미 전역 종합서비스

대표 Paul Kim, Ph.D

summitus37@gmail.com

Tel : (213)531-7215, (909)993-3028

2975 Wilshire Blvd. Suite B01, Los Angeles, CA 90010

# 2016년 고난주간 특별새벽예마 집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갈 3:13)

일시 2016년 3월 21일~3월 25(금)

시간 오전 5:00~6:00



예수의 마음을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예수인교회 예수

인교회 예수인교회

예수인교회 예수

인교회 예수인교회

예수인교회 예수

인교회 예수인교회

예수인교회 예수

인교회 예수인교회

**예수인교회 CHRISTIAN MISSIONAL CHURCH** 10452 Louise Ave., Granada Hills, CA 91344 T. (434) 229-6597 [www.cmc-12.com](http://www.cmc-12.com)

##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권세 반드시 누려라”

### 그리스도의 장자권 회복과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 세미나 열려



이영환 목사 초청 '그리스도의 장자권 회복과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 누림' 세미나가 열렸다.

장자권 회복 운동을 펼치는 이영환 목사(대전 한밭제일교회 담임)가 지난달 29일부터 3월 2일까지 애너하임에 위치한 UBM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장자권 회복과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 누림' 세미나를 인도했다. 남가주 지역을 비롯해 미 동부와 시카고 등에서 목회자 120여 명이 참석하며 많은 호응을 보였다.

이영환 목사는 낮은 자존감과 열등 의식에 빠져 "시골에서 30명만 목회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현재 교회가 크게 성장한 이유를 "오직 말

씀목회, 기도목회 덕분"이라고 했다. 그는 "장자권은 장자의 권세를 말한다"며 요한복음 1장 12절을 들어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러나 우리는 자녀가 된 것만 강조하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권세는 잊고 산다"고 말했다.

그는 "하나님의 자녀란 것은, 곧 장자"라고 말했다. 이 목사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지 심각한 질문을 던지고 만약 자녀가 맞다면, 자녀의 권세를 누리라"고 강조했다.

이 목사는 2일 저녁 세미나에서 약

베스의 기도를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야베스는 태어날 때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비참한 인생을 살았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한 자로 들어쓰셨다"며 "어떤 환경 속에서도 복음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저를 사용해 달라고 근질기게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권유했다. 이어 야베스의 기도처럼 감사와 회개, 명령과 선포, 결단의 기도 시간이 이어졌다.

한편, 이 세미나는 작년에 이어 올해로 두 번째를 맞이했으며 매년 정기적으로 열릴 예정이다. 이인규 기자

### 비영리 단체 설립 및 면세·세금 보고 관련 무료 강의 안내

비영리 단체 설립 및 면세, 세금 보고 관련 무료 강의가 Information Center for Mission and Ministry(선교와 목회를 위한 정보센터) 주관으로 그레이스미션대학이 위치하고 있는 오렌지 카운티 플러튼 은혜한인교회 캠퍼스 내 Grace Library의 GL2 강의실에서 개최된다.

강의와 관련한 기본 안내자료는 당일 참석자에게 무료로 제공된다.

#### ◆ 주요 강의 내용

1. 비영리 단체의 의미와 혜택
2. 비영리 단체의 종류
3. 비영리 단체의 설립절차
4. IRS 및 California State 면세 신청
5. USPS 비영리우편요금 신청
6. 도네이션 및 후원자 관리
7. 홈페이지 및 E-mail 지원
8. 비영리 단체 회계 관리 및 연간 세금 보고
9. 비영리 단체 운영과 변경
10. 질문과 응답

#### ◆ 시간 및 장소

1. 일정: 1차-3월 11일(금)  
2차-4월 1일(금)
2. 시간: 오후 1시30 - 3시
3. 강사: 제임스 구 교수
4. 장소: Grace Library GL2 강의실
5. 주소: 201 S. BASQUE AVE,  
FULLERTON, CA 92833  
(은혜한인교회 내)
6. 문의: 714-393-4595(센터)  
714-515-5431(도서관)

### 한인기독교 상담소 'Happy Together' 세미나

[1면으로부터 계속] 한기홍 목사는 "4300여 미주 한인교회 가운데 1300여 교회가 남가주에 위치해 있어 이미 세계 선교계에서 서부 지역 한인교회는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대회를 통해 한인교회의 세계 선교에 불이 더욱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그는 "교회가 침체되고 있는 이상황에서 우리는 십자가 복음의 회복이란 본질을 불들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곧 선교의 회복이다. 교회에 선교의 불이 붙게 되면 한인교회와 미국교회까지 살게 될 것"이라 말했다. 특히 한 목사는 "선교사들에겐 재충전의 기회, 목회자들에겐 지역 교회의 선교 사명을 재발견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서부 지역 한인교회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중앙의장 이승종 목사는 "한태평양 시대에 미주 서부 지역에서 이런 행사가 열린다는 것은 전세계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 전망했다.

주최 측은 이번 대회에 1200~1500여 명의 선교사가 참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목회자나 평신도는 약 4천 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주최 측은 또 이런 점에서 이번 대회에 남가주 한인 목회자와 성도들이 대거 참석해 선교에 도전받길 기대하고 있다.

올해 대회에는 로랜 커닝햄 목사(YWAM 총재), 오대원 목사(안디옥 커넥션 대표), 폴 애슐만 박사(CRU 대표), 마이클 오 박사(국제로잔운동 총재) 등이 강사로 참여한다.

한인 중에도 한기홍 목사(은혜한

인교회), 서삼정 목사(아틀란타제일장로교회), 이동휘 목사(바울선교회), 박기호 교수(풀러신학교), 호성기 목사(필라안디옥교회), 정인수 목사(아틀란타연합장로교회) 등이 강의를 맡는다. 또 200여 개의 선택강좌와 선교포럼에서 선교 전문가들을 만나 볼 수 있다.

이번 대회는 한어권과 영어권으로 나뉘어 진행되며 6월 6일(월)부터 10일(금)까지 열린다. 어린이 선교대회가 동시에 진행되기에 젊은 부부들이 자녀와 함께 참여할 수 있다. 또 이 대회에 앞서서는 6월 3일(금)부터 6일(월)까지 제15차 한인세계선교대회와 한인선교사자녀대회가 열린다. 등록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www.kwmc.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준형 기자

월드미션대학 부설 한인기독교 상담소에서는 3월 8일(화)부터 4주간에 걸쳐서 "Happy Together"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에서는 우리 안에 있는 다양한 감정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분노나 우울한 감정들이 생겨나는 진짜 이유들을 발견하므로 자신의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하는 방법들을 배우고 다루게 된다. 건강한 감정표

현을 통해 더불어 행복한 삶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이 초청 대상이다.

-주제: Happy Together  
-일정: 3월 8일, 15일, 22일, 29일  
-시간: 오전 10시 30~12시 30분  
-등록비: 10불  
-장소: 한인기독교 상담소 509호  
-주소: 500 Shatto Pl #600  
LA, CA 90020  
-문의: 213-738-6930

### 기독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정재효, 이원상, 박기호, 방지각, 김중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고문변호사 : 정찬웅  
지사장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la@gmail.com

Pay to the Order of : Christianity Daily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당신의 마지막 카드**  
13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인, 찰리 정

**Puente Hills Hyundai HYUNDAI**

찰리 정(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새빛한의원**  
Saevit Acupuncture clinic

**한방내과, 한방성형 & 통증클리닉**  
늘환자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환자의 몸이 지나고 있는  
"자연치유력"을 살려내는 새빛이 되겠습니다.

약력 북경중의약대학졸업 전 한의과대학 교수익임(설리한의대)

**213-389-8275**  
520 S. Virgil Ave., #305 Los Angeles, CA 90020

수술없는 한방 성형  
치진 턱선을 올려 젊음 유지  
이름다운 여인이 되어보세요.

한방감기  
특별처방!!  
(5일분-\$35)

Welcome to a better world

**Green M. Wild IMAGE SYSTEMS**  
Sales Representative : Eric Kim  
GreenMWild@gmail.com  
TEL : 213 705 7778

교회 및 자선, 비영리단체는 특별한 혜택  
Used printers trade in & purchasing

**bizhub C554e/C454e/C364e/C284e/C224e**

C554e Color B&W 55/55 ppm  
C454e Colour B&W 45/45 ppm  
C364e Colour B&W 36/36 ppm  
C284e Colour B&W 28/28 ppm  
C224e Colour B&W 22/22 ppm  
Dual Scan ADF 160 ppm Duplex  
Dual Scan ADF 80 ppm Simplex  
Emperon Driven!  
USB Print  
Colour Internet Fax  
Mobile Support

**KONICA MINOLTA bizhub**

최첨단 고해상도 칼라 디지털 복합기  
칼라복사/칼라프린트/칼라스캔/팩스/네트워크  
최고의 인쇄 품질과 획기적인 비용절감

**Simitri with bizhub**

**bizhub MarketPlace**

## 3·1절 기념 예배 및 사랑의 결혼식 후원 음악회

제97주년 3·1절을 기념하는 예배와 음악회가 남가주한인목사회 주최로 지난달 27일 월서연합감리교회에서 열렸다. 이번 음악회 수익금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한인 커플들의 단체 결혼식인 ‘사랑의 결혼식’을 후원하는 데에 사용된다. 목사회는 오는 5월 28일(토) 종양루터교회에서 이 결혼식을 거행할 계획이다.

엄규서 목사회장은 “목사회는 지난 49년 동안 3·1절을 기념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려 왔다”면서 “선조들의 민족 사랑 정신을 이어받아 이날을 기리며, 나라 사랑의 마음을 다지려 한다”고 강조했다.

음악회에서는 영엔젤스콰이어, 에버그린여성합창단, 목사장로부부합창단, LA크리스천싱어즈, 한아름찬양율동팀, LA남성선교합창단, 한이룸합창단, 소프라노 최정원, 올캐니스트 이해경, 클라리네티스트 백철, 테너 오위영 등이 연주했다.

의 생활이 안정돼 건전한 사회 풍토를 형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음악회에 앞서서 드린 3·1절 기념 예배에서는 엄 목사회장이 사회를 맡은 가운데 민중기 목사(충현선교교회 담임)가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시 150:1-6)”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기념식에서는 모든 참석자가 미국국가와 애국가를 부른 후, 미주 3·1여성동지회 홍순옥 회장이 독립선언문을 낭독했다. 이어 삼일절 노래를 제창하고 만세 삼창을 불렀다.

음악회에서는 영엔젤스콰이어, 에버그린여성합창단, 목사장로부부합창단, LA크리스천싱어즈, 한아름찬양율동팀, LA남성선교합창단, 한이룸합창단, 소프라노 최정원, 올캐니스트 이해경, 클라리네티스트 백철, 테너 오위영 등이 연주했다.



2월 27일 월서연합감리교회에서 열린 3·1절 기념예배 및 사랑의 결혼식 후원 음악회에 참석한 이들이 독립 정신을 기리며 만세삼창하고 있다.

## “남가주한인목사회 97주년 3·1절 기념 행사”

### 라흥채 목사 초청 세미나

####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세미나를 인도하고 있는 라흥채 목사.

남가주한인목사회 주최로 라흥채 목사 초청 “하나님의 구원 계획” 세미나가 1일-2일 양일간 한미장로교



세미나를 인도하고 있는 이성자 사모.

회(담임 이운영 목사)에서 열렸다. 이 세미나에서 라 목사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온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역사적 사건에 기초한 도표로 정리해서 목회자들에게 전달했고 특히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나온 종말의 문제에 관해 집중적으로 강의했다.

그는 “성경 말씀에 나온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따라 가야만 구원의 길에 이를 수 있다”면서 “이제 우리 앞에는 수많은 환란과 역경이 기다리고 있다. 목적지를 알 때 최선을 다해서 갈 수 있다”며 깨어있는 목회자가 되길 요청했다.

뉴욕제자들교회 담임인 라 목사는 서울대 공대를 졸업하고 미국 기업에서 근무하다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았다. 1996년 뉴욕제자들교회를 설립해 현재까지 목회하고 있으며

### 이성자 사모 초청 영성 세미나

#### 사모도 목회자다

한인 이민교회 사모들을 위한 영성 세미나가 남가주한인목사회 주최로 열렸다. 이 세미나는 1일-2일 까지 양일간 이성자 사모를 강사로

초청한 가운데 “사모도 목회자다”란 주제로 세계아가페선교교회(담임 김요한 목사)에서 열렸다.

한국의 대표적 부흥사 중 한 명인 피종진 목사(남서울중앙교회 원로)의 아내인 이 사모는 이번 기간 동안 사모들에게 목회 동역자로서의 정체성을 요청했다.

이성자 사모는 “사모는 목회자가 아니지만 목회자적인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았기에 목회자에 버금가는 삶의 자세가 당연히 요구된다”고 전했다.

이 사모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을 인용해 목회의 진정한 의미를 조명하고 목회자와 사모에게 요구되는 목양의 자세를 설명했다. 특히 사모에게는 순종의 미덕, 사랑의 역사, 기도의 정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누가는 바울의 목회를 돋기 위해 의사직을 포기했다”면서 “사모도 누가처럼 남편 목회자의 사역을 돋는 데에 헌신해야 한다”고 했다.

또 돋는 배필, 순종의 모범, 기도 우

선의 모범이 되고 탐욕으로부터 자유로우며 성도들의 아픔을 들어줄 수 있는 신문고(申聞鼓), 꿈의 사람

이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 사모는 인천교대, 총신대 신대

원, 연세대 연신원 등에서 공부했고

인디애나 그레이스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세

종 평화의동산 부원장으로 있으면

서 국내외에서 사모 세미나로 사모

들을 격려하고 있다.



라흥채 목사 초청 목회자 세미나가 남가주한인목사회 주최로 열렸다.



남가주한인목사회 엄규서 회장(좌)이 라흥채 목사(우)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 십자가에 달려 하신 말씀들

요한복음 19:26-30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재호

구약에서부터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하신 말씀이 성취되기 위하여 예수께서는 동정 탄생하셨습니다. 공생애의 마지막 유월절이 되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스스로 죽음의 길로 나아가셨습니다. 유월절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고 죽임 당하시기로 구약에서부터 작정된 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 가상칠언

## 1. 로마 군병들의 구원을 위한 간구 십자가에 달려 하신 말씀들

첫 번째 하신 말씀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사람들의 죄를 저들에게 추궁하지 말아달라는 간구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로마 군병의 사형 집행이 자신들이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님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면서도 자신들이 원한이 있어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높은 사람들이 시키니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형을 집행하는 로마 군인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 2. 회개한 강도의 구원 선포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좌우편에 매달린 강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한 강도가 예수님을 향하여 '네가 그리스도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우리도 십자가에서 구원해 달라!'며 빙정했습니다. 그 반대편에 있는 강도가 그 모습을 보며 그 사람을 질책했습니다. '너와 나는 우리가 행한 일에 벌을 받아 죽임 당하는 것이 너무나 마땅하지만, 우리 가운데 못 박히신 예수님은 하신 일 중에 옳지 않은 일이 하나도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향하여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니를 생각해 주소서'라는 신앙고백을 합니다.

그것은 철저한 회개 기도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눅 23:43)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형틀에 피 흘리며 죽어 가면서도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시키기 위하여 애쓰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영혼 구원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 3.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심

세 번째 하신 말씀은 어머니 마리아와 제자 요한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아래를 바라보니 어머니 마리아가 울고 있고,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그 옆에 함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이 기회라 생각하시고, 육신의 아들로서 못한 효도를 다하기 위해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본문 26절에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라고 제자 요한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원래 요한은 마리아의 언니의 아들이어서 생질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예수님 대신에 아들로 생각하여 요한의 효도를 받으며 살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어서 요한에게는 "보라 네 어머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은 이 말씀을 듣고 그 시간부터 마리아를 어머니로 여겨 지금 정성으로 아들 된 도리를 다하게 됩니다. 그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할 때도 마리아를 모시고 다니면서 효를 다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인류 전체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명을 감당하면서도 육신의 부모에 대한 인간의 마땅한 도리를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효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몰라보고 믿지도 않고 지옥 길을 고집하는 부모님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해서 천국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최상의 효도입니다.

## 4.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네 번째 말씀은 구약을 인용하셨습니다. "제 구 시 즈음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하는 뜻이라"(마 27:46)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불평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의 어린양으로 오셨습니다. 이런 불평을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불평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고통스러운 부르짖음이 말씀을 읽는 성도로 하여금 자신의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 앞에 완전히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행복하게 만듭니다. 이런 고통은 실은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고통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지면 회개하고, 구원받는 믿음 가운데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 4. 신 포도주를 거절하심

다섯 번째는 오늘 본문 28절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옆에 있던 사람이 해용이라는 스펀지와 비슷한 것을 막대기 끝에 달고 신포도주를 적시어 예수님의 입에 갖다 대었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이를 몰약 탄 신 포도주라고 합니다. 이는 마취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3절은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를 거절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죄 값을 모두 지고 가시기 위해 마취제마저 거절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며 우리는 마음 깊이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고통을 하나도 감하지 않고 다 받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 주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주님을 위해 어떤 희생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봉사의 기회 앞에 자신의 환경과 여건만 생각하며 못한다고 한다면, 이는 신앙의 의리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행동입니다. 이런 자가 어찌 예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 6. 다 이루었다

여섯 번째로는 본문 30절에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자, 예수님 자신의 사명을 이제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것은 택하신 백성들의 죄를 영원히 용서 받을 수 있게 하는 대속의 죽음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믿음으로 회개

하는 사람들에게 죄를 용서받고 하늘나라로 들어갈 길이 열렸습니다. 이를 두고 다 이루셨다고 외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알아보고,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철저히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을 뿐 아니라, 보혜사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성령에 이끌리며 쓰임 받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삶을 살다가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과정을 거쳐 하늘나라까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들어가게 됩니다.

## 7.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부탁하심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인류 구원을 위한 모든 사명을 다 마치시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로 삼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예수님처럼 다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을 모델로 보여주시게 됩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하나님께만 자신의 영혼을 부탁하고 계십니다. 우리 역시도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천국소망을 가꾸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가상칠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극심한 고통을 당하면서도, 택한 백성들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에 유익이 되는 말과 행동만 하셨습니다. 이를 우리의 모델로 삼아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까지 주님께만 충성 봉사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 성은교회 장재호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국 선교 설교			
TV 한국 방송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북 기독 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외 선교 설교			
TV 미국 방송 설교		라디오 미국 방송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CTS TV	수요일 서부오후 4시30분/동부오후 7시30분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토요일 서부 오후 6시/동부 오후 9시	AM1310 LA 미주 기독교방송	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미국 신문 설교		라디오 미국 방송 설교	
기독일보	5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화요일 오후 7시30분 금요일 오후 2시30분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FM91.5(SCA) AM1650 LA 미주 기독교방송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호 목사"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 성은복음선교회

## 회소식 Super store 푸엔테힐스에서만 드리는 중·소형 교회 목회자를 위한 자동차 특별 리스 '패스터 패키지'(Pastor Package)

크레딧이 없거나 나빠도 OK!  
중·소형 목회자를 위한 원가세일!



차종 : 엘란트라, 소나타, 중고차  
구입서류 : 목회자 증명서, 현재 목회하고 있는 교회 주보, 소득증명서

P-H 푸엔테힐스 현대 Tel. (213)276-8959(찰리 정)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Dealer Tel. 1-880-850-2077



찰리 정

# Christian Preschool 원장 초빙

2016학기 Christian Preschool 자체운영과  
관련하여 원장을 초빙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어린이들을 돌보며 Preschool 운영에  
열정을 가지신 분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자격:** 원장 Director License 소지자  
State Policy 규정에 의해  
Preschool 운영에  
결격사유가 없는 유경험자  
한국어 / 영어 Bilingual 필수

**제출서류:** 이력서, 신앙고백서, 자기소개서

**제출처:** 선한목자교회  
우편접수: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이메일접수: info@sunhanchurch.com

**문의:** (909) 591-6500



www.sunhanchurch.com

## 토브 성경 연구 Tov Bible Study



강신권 목사

- 히브리식 사고 : 3통 사고
  - 히브리식 체현 : 5특체현으로 성경 원전 해석
  - 현재 : 요한계시록 특강(매주 수요일 7:30pm)
  - 강사 : 강신권 목사
  - 장소 : WBPC 세계성경장로교회
- Tel(562)761-5242**  
**Tel(213)739-0403**

17002 S.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 • 김 인 수 교수의 한국교회사

## 한국교회 일치 운동



김 인 수 교수  
전 미주장로회신학대 총장

한국에 나온 선교사들은 처음부터 앞으로 한국에 개신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즉 교파 구별 없이 단일한 교회를 설립한다는 원대한 꿈을 꾸었다. 단순히 꿈만 꾼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위해 무던한 노력을 경주했다. 언더우드는 미국 북장로교회 해외 선교부 총무 브라운(Arthur Brown)에게 한국에서 단일교회 건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써 보낸 일이 있다. “한국에서 ‘연합교회’(Union Church for Korea)는 본질적인 문제이며,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든 장로교인들은 하나님의 교회 설립을 위해 모두 연합해야 한다.”

여러 선교회가 연합하여 구성한 개신교복음주의선교협의회가 계획한 일들이 많았다. 그 중 가장 역점을 둔 사업은 ‘한국에 하나의 복음주의 교회’(to have but one evangelical Church in Korea)였다. 이 협의회는 단일교회 구성을 위해 장로교와 감리교가 연합하여 노력하던 중, 1904년에 하나의 결정을 했다. “때가 오면 한국에 하나의 개신교회를 설립한다는 것이 본 회의 결의다. 이 교회 이름은 ‘대한예수교회’다. 연합은 찬송가와 교회 신문 등을 출판하며, 가을에 모든 개신교 선교사들이 모인다. 이 계획들 이후에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교육사업과 의료사업 그리고 복음사업은 계속돼야 한다.”

이 연합 정신은 1905년 서울에서 모인 선교사 기도 모임에 참석한 모든 이들이 열정적으로 표했고, 동년 8월에 서울에서 모인 같은 모임에서도 ‘한국의 연합교회’(One Union Church)에 대한 강력한 요청이 표출됐다.

1905년 이 일을 줄기차게 주도했던, “초교파주의의 열렬한 추종자” 언더우드는 그 목표에 대한 염원을 다음과 같이 피력했다. “나는 유능하고 잘 훈련된, [그리고] 철저하게 헌신적인 토착적인 목회, 분파적이 아니고 연합된 그리스도의 교회, 거기에는 감리교인도, 장로교인도, 성공회 교인도, 유대인도, 헬라인도, 스구디아인도, 자유자나 매인 자나 할례자나 무할례자가 구별이 없고 다만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의 모든 것일 뿐인 교회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확신한다. 나는 이 나라가 강하고 큰 팔로, 한편으로는 중국에, 다른 한편으

로는 일본에 그 세력을 펼쳐, 편견을 줄이고 상대에 대한 믿음을 공고히 하여 한국이 그 이웃들과 더불어 어린양을 영원히 찬양하며, 왕 중 왕이며 만주의 주님을 드높이는 기독교 국가의 거대한 원(圓)을 이루는 세 나라가 되는 것을 바라본다.”

같은 해에 언더우드는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그들은 [장·감] 신앙 선언이 다르고, 예배 의식도 다르고, [예배] 방법이 다르고, 교회 정치도 다르지만, 그들의 진정한 목표와 목적은 하나인데, 그것은 “한국의 복음화”다. 한 믿음과 소망, 한 아버지, 한 구주, 한 영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 한 가지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에 따라 한 연합된 기독교회를 한국에 건설함으로 그들의 일치된 신앙을 보여줄 때가 곧 올 것이다.”

개신교복음주의선교협의회가 해야 했던 일은 교육, 의료, 문서, 그리고 출판 업무가 다 포함돼 있었고, 이 일들을 위해 협력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이런 사업들도 결국은 하나님의 교회 설립을 위한 전초 작업이었고, 최종 목표는 한국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이다.

1905년에 하나의 교회 구축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런 단일교회 설립 의지에 대해 장·감 두 교회는 같은 해에 “한국 민족교회의 설립의 때가 차면, 그 이름을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The Church of Christ in Korea)로 명명(命名)하기로 결의했다.” 또 두 교회는 “열심히 바라고 기도하여 연합이 이루어져, 어린 한국 교회가 기독교권을 이끌어 주님께서 일치를 위해 기도하신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자고 했다.

그러나 선교사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원인으로 남인도교회나 중국교회가 성공한 단일교회 형성이 한국에서 실패한 것은 빼놓을 수 없다.

## 카이로스의 관점에서



남 성 수 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헬라어에서 시간을 의미하는 단어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크로노스이며 다른 하나는 카이로스이다. 크로노스는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경험하는 그냥 흘러가는 시간을 말한다. 해가 뜨고 지는 것으로 하루가 가듯이, 나무에 잎사귀가 맺히고 다시금 떨어져 한 해가 가듯이 지금 경험한 현재의 시간이 과거로 흘러가고 미래가 다시금 현재로 흘러오는 일상의 반복되는 시간을 의미한다. 그러나 카이로스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난 의미 있는 시간, 특정한 시간을 말한다. 특히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에 개입하여 인간에게 하나님의 생명 역사를 부과하신 시간들을 통틀어서 카이로스라 한다. 이 카이로스의 가장 큰 특징은 시간이 현재에서 과거로 흘러도 그 과거의 시간이 죽은 시간이 아니라 살아 있는 시간이 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개입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현재의 시간에 부여하신 생명의 역사가 과거에도 미치고 있고, 앞으로 올 미래에도 미치고 있다. 그 카이로스의 최정상에 있는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그 이전의 모든 인간, 그 이후의 모든 인간에게 이루어진 구원의 능력이다. 구약의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신약의 백성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이미 2천 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진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생명의 능력은 그 이전의 모든 사람에게, 그 이후의 모든 사람에게 늘 현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십자가는 과거의 흘러간 한 시간에 있지만, 결코 죽은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 곧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와 개입 속에서 그 영향력이 계속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2016년을 살고 있는 우리가 2천 년 전에 이루어진 십자가와 부활 때문에 구원을 받은 이유가 바로 이 이유 때문이다. 분명히 확신한다. 십자가와 부활은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그 생명의 능력을 이어갈 것이다.

이 때문에 세상의 모든 역사는 B.C와 A.D로 구분된다. B.C는 Before Christ의 약자이다. A.D는 Anno Domini라는 라틴어의 약자로, in the year of our Lord(우리 주님의 시대에)라는 뜻이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구하고 단일교회의 설립은 실패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상호 작용한 때문이다. 그中最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선교사들을 파송한 본국 교회의 비협조 때문이다. 신앙적으로 보수적인 미국 남장로교회가 한국에서 연합교회 모색에 대한 얘기를 듣고 다음과 같은 반문을 제기했다. “교회 연합을 제안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한국 기독교의 정체(政體)는 어떤 것이 될 것인가? 새 교회 신조는 무엇을 포함할 것인가? 이 나라 [미국]의 감리교와 장로교의 교리적 차이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리하여 미국 남장로교회는 한국에서 연합교회 문제는 후일 논할 수 있으나 지금은 시기상조라는 견해를 밝혀, 한국 선교사들에게 공한을 띠웠다. 공한에, “후일에 여하히 타 교회와 연합하여 자유교회를 설립하는 것이 가하나, 지금은 유안(留案)하는 것이 위호(爲好)”하다 기록했다.

1962년 남장로교회 선교사였던 조지 브라운(G.T.Brown)은 이 연합의 실패에 대해 두 가지 이유를 지적한 바 있다. 첫째 이유는 [선교사들] 모국 교회들의 비우호적 태도였다. 특히 감리교회는 한국에 와서 장로교회와는 달리 남·북 감리교회가 각각 교회를 설립하여 감리교회 자체 내에서도 일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둘째 이유는 한국 교회 지도자들의 연합에 대한 열의 부족이다. 여러 장로교회 선교부들이 독립노회의 조직으로 인해 연합에 대한 기선(機先)을 잊었다. 미국 북장로교회 선교부에서 연합교회 문제를 논의했고, “이 문제는 1907년에 독립노회를 조직하고 나서” 생각해 볼 일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1912년 장로교회 총회를 구성한 후 협의회의 이름을 ‘General Council’에서 ‘Federal Council’로 바꾸었다. 또한 현장에도 더 이상 교회 연합(Church Union) 문제를 심각히 다루고 있지 않아, 결국 한국에서 단일교회 형성이 실패하고 말았다. 선교사들의 애타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원인으로 남인도교회나 중국교회가 성공한 단일교회 형성이 한국에서 실패한 것은 빼놓을 수 없다.

## 크리스천 자녀를 위한 골프·성경교실

저렴한 비용으로 골프와 성경공부를 함께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성경공부를 통해 영성과 인성교육을 하며, 골프를 통해 집중력과 체력향상을 시켜줍니다. 귀한 자녀에게 이 두 가지를 함께 가르치는 전문인에게 믿고 맡겨주십시오.

달라지는 자녀의 모습을 보게 되실 겁니다. \*직업 가능

■ 문의 : 최 제이콥 Professional (310-598-0746)

■ Email : mrjacob601@hotmail.com

■ Players Tour

12~14살, 18홀, 1~2명 모집

■ 피아노반주 가능한 전도사님을 찾습니다.



### 〈최 제이콥〉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New Bridge University Golf Management  
The Reformed University 대학원  
Dae Han Theological Seminary, U.S.A 신학박사(D.D.)  
현 ‘제일좋은 예닮교회’ 담임목사

# 전 도시 총력전도 & 다민족 연합기도회 AZUSA NOW

LOS ANGELES MEMORIAL COLISEUM

2016.4.9 SAT 7-9AM  
LA 메모리얼 콜로세움

역사적 Azusa Now 전 도시 총력전도 &  
다민족 연합기도회에 초청합니다

- ▶ 일시: 2016년 4월 9일 토요일  
“한인들의 연합된 기도가 미국의 새벽을 깨우며 기적을 이룰 것입니다!”  
7:00 am – 9:00 am (한인 인도 기도시간)  
4:00 am – 10:00 pm (도시 총력 복음전도 초청 집회)
- ▶ 장소: LA 메모리얼 콜로세움 (USC 경기장)  
3911 S. Figueroa St., Los Angeles, CA 90037
- ▶ 주최: The Call과 미국 주류 선교단체 연합 (대표 루 잉글 목사)
- ▶ 한인 주관: Azusa Now 한인 준비위원회(박희민 목사, 신승훈 목사,  
진유철 목사와 공동대표들), 미주 성시화 운동본부, 각 교단,  
각 지역교협 및 목사회, 기독단체들, 한인교회들
- ▶ 주관언론사 : 크리스천헤럴드 (CHTV18.88/www.chtv1888.org)

“한인교회 총동원 부활절 도시 전도 실천의 날로

3월 27일 부활절 오후 2시부터 1,300개 남가주 한인교회마다…”

남가주에 있는 모든 도시마다 총력전도가 일어나서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개척교회 및 미자립교회를 위해 무료 부활주일 전도세트(Easter Bag)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동참을 희망하시는 교회들은 아래 문의처로 연락주세요!

문의: Azusa Now 한인 준비위원회 (준비위원장 이성우 목사)  
213-384-5232/213-598-5323, laholycity@yahoo.com

REGISTER AT AZUSANOW2016.COM



참석자들이 만세삼창을 하고 있다.



참석자들이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

## “3·1운동의 정신 다시 새롭게 되살려야”

한반도 평화통일 위한… 제97주년 3·1절 기념 한국교회 연합예배 드려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제97주년 '3·1절 기념 한국교회 연합예배'가 28일 오후 5시 종교교회(담임 최이우 목사)에서 한국교회평화통일기도회(대표회장 김삼환 목사)와 미래목회포럼(대표 이상대 목사) 공동주최로 열렸다.

이상대 목사의 인도로 먼저 열린 예배에서는 이경숙 권사(대한민국가조찬기도회장)가 대표기도를 하고, 이어 구자우 목사(한국장로교총연합회 총무)가 성경봉독을 한 후 이영훈 목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가 "진리와 자유"(요 8:31~32)란 주제로 설교했다.

이영훈 목사는 설교를 통해 "일제 시대 한국 지도자들은 대부분 기독교인이었다"고 말하고, "그들이 몸

을 던져 한국 독립을 위해 헌신·희생했다"면서 "진리된 예수를 만나면 거짓과 타협치 않고 정의를 실천하면서 바른길로 가게 된다"고 했다.

설교 후에는 소강석 목사(경기도 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가 "3·1 운동의 바람, 다시 일으키자"며 메시지를 전했고, 이어 참석자들은 합심기도(유만석)을 하면서 "3·1기독교운동 정신계승을 위해"(이혜훈)

"나라와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해"(이호영) "동북아의 화해와 세계 평화를 위해"(서길원) 기도했다.

2부 기념식은 최이우 목사(한국교회평화통일기도회 실무회장)의 인도로 진행됐다. 먼저 김삼환 목사(한국교회평화통일기도회 대표

회장)가 인사말을 전했으며, 조일래 목사(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가 격려사를 했다. 이어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독립선언문'을 교도했으며, '3·1절 한국교회평화통일 비전선언문'을 낭독했다. 또 참석자들은 함께 3·1절의 노래(정인보 작사, 박태현 작곡)를 불렀으며, 전용재 감독(기감 감독회장)의 인도로 만세삼창을 한 후 감사한 목사의 축도로 행사는 모두 마무리 됐다.

한편 참석자들은 선언문을 통해 한국교회의 회개와 하나됨, 그 연장선상에서의 남북평화통일을 소망하고, 독일 통일의 초석이었던 독일교회와 같이 "평화통일 그 날까지 끊임없이 기도할 것"이라 다짐했다. 박용국 기자



본당을 가득 메운 청년과 청소년들. ⓒ라이즈업 제공

## “새 학기 앞둔 다음 세대… 예배와 기도로 준비”

1천여 명 학생들 모인 가운데… 라이즈업 워십 개최

라이즈업무브먼트(대표 이동현 목사)가 2월 라이즈업 워십을 지난 달 27일 여의도순복음강남교회에서 개최했다. 이 집회는 새 학기를 앞두고 수도권 연합으로, 1천 명 이상의 다음 세대들이 본당을 가득 메운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집회에 사람들이 몰린 이유는, 라이즈업워십밴드를 중심으로

한 청년 스태프들이 4주간 준비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매일 새벽 서울 강남역에 모여 기도했으며, 오전과 오후에는 서울시내 모든 교회들을 방문해 집회를 소개하면서 각 교회의 기도제목을 받았다.

이날 찬양을 인도한 라이즈업워십 밴드 리더 이동호 선교사는 "중·고 등·대학생들은 학교에 나가 하나님

의 백성으로 살아야 하지만, 캠퍼스와 학교 현장은 날이 갈수록 악해지고 있다"며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충만히 임하셔서 우리를 세상을 이기는 자로 세워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라고 전했다.

기도회 후에는 이동호 선교사와 직접 이야기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이대웅 기자

## “나라위해 하나되어 기도하자”

원로목회자들 순교 현장서… 3·1절 기념 특별기도회 개최

한국 기독교 원로목회자들이 3·1절을 기념해 순교 현장인 제암교회(경기도 화성 소재)를 찾아 뜨겁게 기도했다.

한국기독교원로목회자후원회(이사장 임원순 목사)는 제97주년 3·1운동을 맞아 '순국 및 순교자 기념 원로목회자 특별기도회'를 제암리 3·1운동 순국기념관에서 2월 29일 오전 11시 400여 명의 원로목회자들과 함께 진행했다.

이 단체 상임대표회장 김진옥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1부 예배에서는 총재 한은수 감독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빌 1:20)'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고, 한국기독교원로목사회(한기원)의 최복규 증경회장이 대표기도했으며, 강만원 증경회장과 조석규 사무총장, 백승억 공동회장,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총무 협의회 신연장 회장이 '나라의 안정과 경제 발전을 위해', '북핵 포기와

평화통일을 위해', '한일관계 개선과 일본의 태도 변화를 위해', '한기원 사역을 위해' 특별기도했고, 한기원 김성진 증경회장이 축도했다.

한은수 감독은 설교를 통해 "바울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었고, 그의 삶 속에 즐거움과 기쁨은 주님처럼 사는 것이었다"며 "우리가 이제라도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움이 없으며, 어디에서나 담대하고, 생사를 초월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찬양을 올려 드리는 길을 걸어가기를 축복한다"고 전했다.

2부 3·1절 기념행사는 한기원 문세광 대표회장의 감사 인사, 제암교회 강신범 원로목사의 교회 소개, 한은수 총재의 감사패 전달, 한기원 김영배 증경회장과 이상모 명예회장의 '독립선언문 낭독'과 만세삼창으로 진행됐으며, 만찬을 위해 한국기독교스포츠총연합회 송용필 대표회장이 기도했다. 송경호 기자

## “일어나라 한국이여”

제26회 3·1절 민족화합기도회 열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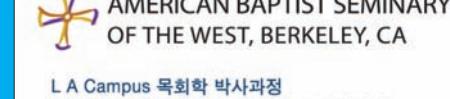
제26회 3·1절 민족화합기도회가 "일어나라, 한국이여! 민족화합으로!"란 주제로 1일 오전 삼성제일교회(담임 윤성원 목사)에서 열렸다.

더불어 참석자들은 다문화 성도들과 함께 이인수 장로(건국대통령 이승만 박사 기념사업회)의 인도로 만세삼창을 외쳤으며, 예배는 박만희 사령관(구세군)의 축도로 모두 마무리 됐다.

한편 예배 후 이어진 특별 세미나에서는 김명규 장로(국가조찬기도회)가 "나라의 발전은 3·1운동 정신으로"란 주제로 강연을 전했으며, 정근모 장로(민족화합기도 후원회)가 '민족화합주간 선언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수민 기자

# 2016 미주기독대학박람회



L A Campus 목회학 박사과정  
(매년 1, 6월 통역제공, GTU 와 ATS 정회원)

Dr. Hyo Shick Pai: drhyopai@gmail.com  
ABSW President: Dr. Paul Martin www.absw.edu



• ABHE 정회원, ATS 종회원  
• 기독교학회원, 회생학회원(Div), 성당학회원, 선교학회원, ESL, TESOL

• 세방정부 승인 SEVIS-I-20 자체 발행

• 입수 후 미국 및 한국에서 시사 가능

• 목회학박사 과정 신설

• 일학당 김은온 목사 T213)407-45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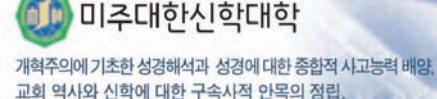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 류종길 박사, 이사장 : 김광희 목사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Fax: (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aeumaster@gm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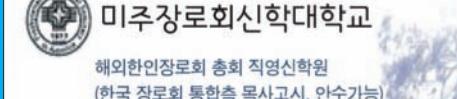
개혁주의에 기초한 성경해석과 성경에 대한 충실히 사고능력 배양,  
교회 역사와 신학에 대한 구속사적 안목의 정립,

믿음을 실천하는 신실한 주의 종 양성,

세계 복음화를 위한 영적인 리더쉽의 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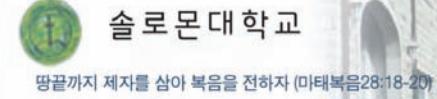
1325 12th Ave., Los Angeles, CA 90019

Tel: 323-731-9819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총 목사고시, 인수기능)  
I-20빌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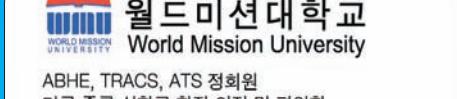
땅끝까지 제자를 삼아 복음을 전하자 (마태복음28:18-20)

총장: 백지영 박사 부총장: 브렌트 프赖스 박사

3921 Wilshire Blvd., #400, Los Angeles, CA 90020

Tel: 213-381-7755 Fax: 213-381-5055

http://solomonuniv.org/



ABHE, TRACS, ATS 정회원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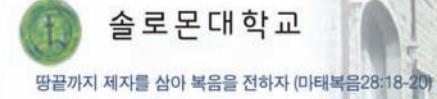
온캠퍼스 & 온라인 프로그램

신학, 목회학, 기독교신학대학 학사/석사/박사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 388-1000 Fax: 213) 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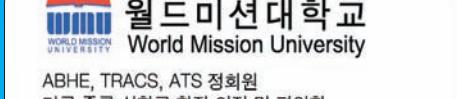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풀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 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 “일치 위한 대화 진전 이룬 북미 3개 교단”

성공회·루터교…6년간 대화 끝에 중간 보고서 발표

북미 지역의 3개 기독교 교단이 성명을 통해 “일치를 위한 대화에서 승리의 진보를 이뤘다”고 밝혔다.

최근 크리스천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북미성공회(Anglican Church in North America, ACNA)와 루터교 미주리총회(Lutheran Church-Missouri Synod, LCMS), 루터교 캐나다총회(Lutheran Church-Canada, LCC) 대표들은 지난 6년 동안 지속적으로 대화한 끝에 지난달 22일 ‘일치와 대화에 관한 중간 보고서’를 발표했다.

‘더 가까운 친밀함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이 3자 간 대화의 진전을 기록하고 있다. 14페이지 분량의 이 보고서는 성공회와 루터교 간 교리적 공통점 등을 요약한 것으로, 삼위일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성경의 영감, 원죄, 정의, 세례 등을 포함하고 있다.

ACNA는 “이 보고서는 LCMS·LCC를 비롯해 상대방에 대한 깊은 이해를 얻고자 하는 ACNA의 숙원이 이뤄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작됐으며, 앞서 수 년간 우리 관계성이 속성과 목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라고 전했다. 이어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교리, 예배, 찬송가, 현신적 지원, 기독교적인 삶 안에서 공통성이 넓이와 깊이를 확신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성명에서 ACNA 폴리 페치(Foley Beach) 대주교는 3개 교단이 공통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신앙을 강조하면서 “너무 많은 교회들이 성경의 가르침을 떠나고 있는 이때에, LCMS와 LCC가 만든 ‘성경적 진리에 대한 기준’을 보게 되어 신선했다. 우리는 신앙의 핵심들에 대해 동의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북미를 복음화하고자 하는 동일한 열망을 나누고 싶다”고 했다.

페치 대주교는 크리스천포스트에 보낸 이메일에서 “우리 앞에 높인 가장 도전적 과제 중 하나는, 각각의 교회들이 어떻게 그 사역들을 이뤄가는지 경험하는 것”이라면서 “ACNA는 사제나 신부, 사도권을 계승한 부제들을 통해 말씀과 성찬을 진행하고, 루터교는 임명된 목사의 사역을 강조한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는 “그리스도의 봄된 우리 안에 깊은 공통의 유대감을 발견하고, 앞서 언급한 큰 일치의 방식을 기재하게 되어 다소 놀랐다”면서 “함께 발견한 이러한 것들을 주님의 선물로 여기고, 주께서 하나님과 영광과 우주적인 교회의 선을 위해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분께 의뢰하자”고 밝혔다.

## “성경적 성윤리 간과는 배교 행위”

美남침례회 러셀 무어 위원장…교회와 성 컨퍼런스에서 동성결혼 비판



러셀 무어 위원장

©크리스천포스트

미남침례회 윤리와 종교 자유 위원회 위원장 러셀무어(Russell Moore)는 “성경적인 성윤리를 간과하는 것은 기독교를 저버리는 것과 같다”며 전통적인 결혼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비신자들과의 결혼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어 위원장은 “성경의 내용은 매우 분명하다. 결혼은 복음이 흘러가도록 고안된 것이고, 단순히 두 사람을 넘어서 하나님과 그의 교회의 연합을 나타내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한 남자와 한 여성 간, 일생의 신실한 연합’으로서 결혼을 만드셨다. 불분명한 연합은, 그리스도가 신부에게 신실하지 않다는 다른 복음을 전한다. 결혼에 담긴 모든 관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며, 이를 보면서 복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킨다”고 말했다.

이어 “하나님의 선한 디자인에는 회복력이 있다. 성적인 혁명으로 인한 수많은 난민들이 생겨날 것이다. 왜냐하면 성적 혁명은 그 약속을 지킬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무어 박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성적 유혹과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서 “교회가 이러한 암박 속에 흔들리는 이들을 외면하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는 “목회자들이 교인들에게서 비신자 가족들의 주례를 서 달라는 압박을 받을 때, 이를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목회자들이 교인들에게서 비신자 가족들의 주례를 서 달라는 압박을 받을 때, 이를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했다.

## “동성결혼 케이크 제작 거부 또 고소당해”

텍사스 기독교인 베이커리…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을 지켰을 뿐

또 동성결혼 케이크 제작을 거부했다가 동성애자들로부터 소송을 당한 케이크가 발생했다.

폭스 뉴스에 따르면 텍사스 주 작은 마을의 기독교인 가정이 운영하는 베이커리에서 동성 결혼 케이크 제작을 거부했다가 성소수자(LGBT) 운동가를 비롯해 성소수자 응호자들에게 위협과 공격을 받고 있다고 한다. 케이크 주문을 거절당한 동성 커플이 이를 고소해 큰 곤경에 처한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텍사스 주 롱뷰(Longview)에 있는 ‘肯스 베이크샵’(Kern's Bake Shop)의 주인인 데이빗 드롬(David Delorme)과 에디 드롬(Edie Delorme)은 인근의 침례교회에 다니는 현신적인 기독교인으로,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베이커리를 운영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지난달 17일 동성커플인 벤 발렌시아(Ben Valencia)와 루이스 마르몰레호(Luis Marmolejo)가 결혼식을 위한 케이크를 제작해달라고 요청했고,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을 지키며 평화롭게 베이커리를 운영해오던 이들에게 큰 시험과 문제가 닥치고 말

았다.

에디는 폭스 뉴스에 “나는 그들에게 솔직하게 미안하지만 동성결혼식을 위한 케이크를 제작할 수는 없다”고 말하고, “우리는 우리의 신앙적 신념과 충동할 수 있는 케이크를 만들 수 없다”면서 “두 젊은 남성들에 대해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서가 아니다. 하나님을 영예롭게 하는 방법으로 가게를 운영하고 싶을 뿐”이라고 했다.

에디는 이들에게 동성결혼식 케이크를 제작해줄 수 있는 베이커 가게의 목록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했지만, 동성커플은 아무 말 없이 가게에서 걸어나갔다. 그리고 그 동성커플은 이 문제를 공론화시키고, 드롬 가족이 자신들을 차별했다고 고소했다.

이 사건이 지역 언론에 보도된 이후, 드롬 가족은 성소수자들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

종교자유 법률단체 퍼스트 리버티(First Liberty)의 마이클 베리(Michael Berry)는 “우리가 그들을 변호할 것”이라면서 “드롬 부부는 자신들의 종교에 따라서 비즈니스를 운영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 국제

# 교회 및 선교

### LA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EM 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점은이 예배 오후 2:22 주일 바질중학교 & 토요서체 - 1기와 버논코너 주중세미 - 520 S. La Fayette Park Pl. #450, Los Angeles, CA 90057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연제선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20 수요예배 오후 7:00 주일학교 오후 11:2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학생, 청년부 예배 오전 11:20
<b>LA 사랑의교회</b> 평신도를 배우고 이민2세를 책임지며, 이민가정을 치료하여 선교방법을 순종하는 교회 520 S. La Fayette Park Pl. #450, Los Angeles, CA 90057 주중연락처 T.(213)386-2233		<b>LA 온하늘교회</b> 1540 S. St Andrews Pl., Los Angeles, CA 90019 T.(819)983-9024
<b>LA 세계선교교회</b> 선교를 통해 행복한, 사랑의 공동체 1025 S Catalina St, Los Angeles, CA 90006 T.(213)909-6473 / www.missionla.org		<b>한천영 담임목사</b>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5:30(화~토) Youth 예배 오전 11:00 토요연합새벽 오전 6:20
<b>나눔과 섬김의 교회</b>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978 S. Hoover St. #203, LA, CA 90006 T.(213) 272-6031		<b>엘리야 김 담임목사</b> 1부예배 오전 7:40 EM 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3부예배 오전 11:45 수요예배 오후 7:30
<b>나성순복음교회</b> 성령충만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어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b>진유철 담임목사</b> 1부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6:00(화~금) 3부예배 오전 11:45 수요예배 오후 7:30
<b>나성동산교회</b> 온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 2525 W. James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 T.(213) 487-3920		<b>한기형 담임목사</b> 1부예배 1부 오전 8:00 금요예배 오후 7:30 2부예배 2부 오전 9: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3부예배 3부 오전 11:00
<b>나성제일교회</b> 생명과 부흥이 풍성한 교회 3251 W. 6th St., LA, CA 90020 T.(213) 383-2600, (213) 383-2602 / iopendoor.org		<b>박현성 담임목사</b> 1부예배 오전 7:30 성인 EM 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00 한아청년예배 오후 2:00 3부예배 오후 1:00 전양예배 오후 3: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월(화) 오전 6:45
<b>남가주광염교회</b> 말씀과 기도로 비상하는 은혜공동체 1153 Valencia St., Los Angeles, CA 90015 T.(213) 559-0191		<b>정우성 담임목사</b> 1부예배 오전 9:00 유초등부 중고등부 오전 11:00 2부예배 정오 11:00 나리와 믿음으로 기도회 주일 오후 1:30 수요집회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모임 6:00(토)
<b>산타모니카교회</b> 죽도록 섬기는 교회 1520 Pearl St., Santa Monica, CA 90405 T. (310) 502-9999 / www.smkc.us		<b>김경렬 담임목사</b> 1부예배 오전 10:30 중고등부 예배 주일 오전 10:30 EM 예배 월(금)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5:30 점은이 예배 주일 오후 1:30 목요찬양예배 목요일 오후 7:30 교회학교 주말 오전 10:30
<b>나눔장로교회 엔키아 선교회</b> 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치는 교회 3407 W. 6th St. #804, Los Angeles, CA 90020 T. (310) 404-6219		<b>김영구 담임목사</b> 주일예배 오후 1:30 성경공부 주일오후 12:00 도오늘부민 모임 오전 11:00
<b>올림픽장로교회</b>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같은 말, 마음, 꿈, 열매 3119 W. 6th St., Los Angeles, CA 90020 T.(213)387-1700 / olympic-church.org		<b>정장수 담임목사</b> 1부예배 오전 8:30 금요기도회 오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3부예배 오전 1:30
<b>임마누엘선교교회</b> 행복한 성도,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1818 S. Western Ave., #200, Los Angeles, CA 90006 T.(323) 766-9922 / www.laimch.com		<b>류종길 담임목사</b>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3부예배 오전 6:00(토)
<b>한마음제자교회</b>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213)321-4433		<b>이명수 담임목사</b> 주일예배 오전 9: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중고등부 오전 11:00
<b>한우리장로교회</b> 말씀과 예배 살아있고 친교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323) 702-6709		<b>강지원 담임목사</b>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수요예배 오후 7:30
<b>김범수 치과</b> General & Cosmetic Dentistry Bryan Kim D.M.D. 5011 Arlington Ave., Los Angeles, CA 90019 T.(213)389-0937, (213)389-0938 F.(323)735.1937		<b>김범수 치과</b>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배 살아있고 친교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323) 702-6709
<b>기독일보</b>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b>기독일보</b> 한국인들이 읽는 신문 기독일보 www.chdailyla.com
<b>대표 주해홍 목사</b> 오늘 성경 읽으셨나요?		<b>대표 주해홍 목사</b> 오늘 성경 읽으셨나요? Ezra Bible Reading Ministry 1661 Raymond Ave. #265, Anaheim, CA 92801 www.ezrabiblereading.com

## LA동부, 팜스프링스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후 11:00  
4부예배 오후 5: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오후 6:00

고태형 담임목사

ECO선한목자교회

선포하고 가르치는 교회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909) 591-6500 sunhanchurch.org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주일성공공부 오전 9:30 주일학교·주일오전 10:30  
영어회중예배 주일 오후 1:0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00  
4부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오후 6:00

이희철 담임목사

갓스월연합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909) 268-4279 / gwachurch.org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9:45  
3부예배 오전 1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후 6:00(토)

고승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이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626) 810-3455 / F.(626) 964-5559

인랜드교회

예수의 은혜한지자들이 사랑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909) 622-2324, F.(909) 622-1480 / inlandchurch.org

박신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15  
3부예배 오후 11:45  
새벽예배(화-금) 오전 6:00  
4부첨단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화-금) 5:30(화) 오전 6:00

이준준 담임목사

장대교회

하나님께 영광!

173 E.Dumas St., San Bernardino, CA 92408  
T.(909) 388-2940

최승록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9시 (지성전) 금요예배 오후 7:00  
오후 11시 (본성전)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6:00  
본성전: 75580 E. Ramon Rd., Thousand Palms, CA 92276  
지성전: 66700 E. 5th St., Desert Hot Springs, CA 92240

이승준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후 6:00(토)

하나로커뮤니티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공동체

18616 E. Rorimer St., La Puente, CA 91744  
T.(626) 912-6600 / www.hanarochurch.org

송재호 담임목사

주차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909) 595-3110 hnsla@hnsla.org

기독일보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chdailyla@gmail.com

## 사우스 베이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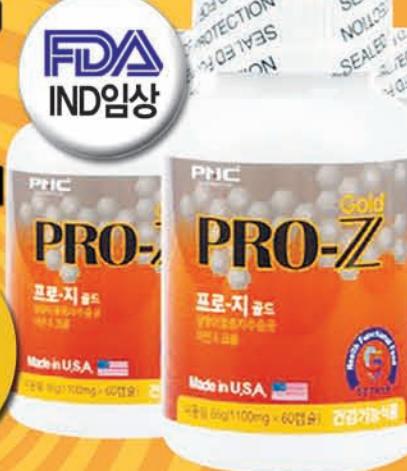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4부예배 오후 7:00  
5부예배(중부) 오전 10:00  
6부예배(중부) 오후 7:30  
7부예배(중부) 오후 8:00  
8부예배(중부) 오후 9:00  
9부예배(중부) 오후 10:00  
10부예배(중부) 오후 11:00  
11부예배(중부) 오후 12:00  
12부예배(중부) 오후 1:00  
13부예배(중부) 오후 2:00  
14부예배(중부) 오후 3:00  
15부예배(중부) 오후 4:00  
16부예배(중부) 오후 5:00  
17부예배(중부) 오후 6:00  
18부예배(중부) 오후 7:00  
19부예배(중부) 오후 8:00  
20부예배(중부) 오후 9:00  
21부예배(중부) 오후 10:00  
22부예배(중부) 오후 11:00  
23부예배(중부) 오후 12:00  
24부예배(중부) 오후 1:00  
25부예배(중부) 오후 2:00  
26부예배(중부) 오후 3:00  
27부예배(중부) 오후 4:00  
28부예배(중부) 오후 5:00  
29부예배(중부) 오후 6:00  
30부예배(중부) 오후 7:00  
31부예배(중부) 오후 8:00  
32부예배(중부) 오후 9:00  
33부예배(중부) 오후 10:00  
34부예배(중부) 오후 11:00  
35부예배(중부) 오후 12:00  
36부예배(중부) 오후 1:00  
37부예배(중부) 오후 2:00  
38부예배(중부) 오후 3:00  
39부예배(중부) 오후 4:00  
40부예배(중부) 오후 5:00  
41부예배(중부) 오후 6:00  
42부예배(중부) 오후 7:00  
43부예배(중부) 오후 8:00  
44부예배(중부) 오후 9:00  
45부예배(중부) 오후 10:00  
46부예배(중부) 오후 11:00  
47부예배(중부) 오후 12:00  
48부예배(중부) 오후 1:00  
49부예배(중부) 오후 2:00  
50부예배(중부) 오후 3:00  
51부예배(중부) 오후 4:00  
52부예배(중부) 오후 5:00  
53부예배(중부) 오후 6:00  
54부예배(중부) 오후 7:00  
55부예배(중부) 오후 8:00  
56부예배(중부) 오후 9:00  
57부예배(중부) 오후 10:00  
58부예배(중부) 오후 11:00  
59부예배(중부) 오후 12:00  
60부예배(중부) 오후 1:00  
61부예배(중부) 오후 2:00  
62부예배(중부) 오후 3:00  
63부예배(중부) 오후 4:00  
64부예배(중부) 오후 5:00  
65부예배(중부) 오후 6:00  
66부예배(중부) 오후 7:00  
67부예배(중부) 오후 8:00  
68부예배(중부) 오후 9:00  
69부예배(중부) 오후 10:00  
70부예배(중부) 오후 11:00  
71부예배(중부) 오후 12:00  
72부예배(중부) 오후 1:00  
73부예배(중부) 오후 2:00  
74부예배(중부) 오후 3:00  
75부예배(중부) 오후 4:00  
76부예배(중부) 오후 5:00  
77부예배(중부) 오후 6:00  
78부예배(중부) 오후 7:00  
79부예배(중부) 오후 8:00  
80부예배(중부) 오후 9:00  
81부예배(중부) 오후 10:00  
82부예배(중부) 오후 11:00  
83부예배(중부) 오후 12:00  
84부예배(중부) 오후 1:00  
85부예배(중부) 오후 2:00  
86부예배(중부) 오후 3:00  
87부예배(중부) 오후 4:00  
88부예배(중부) 오후 5:00  
89부예배(중부) 오후 6:00  
90부예배(중부) 오후 7:00  
91부예배(중부) 오후 8:00  
92부예배(중부) 오후 9:00  
93부예배(중부) 오후 10:00  
94부예배(중부) 오후 11:00  
95부예배(중부) 오후 12:00  
96부예배(중부) 오후 1:00  
97부예배(중부) 오후 2:00  
98부예배(중부) 오후 3:00  
99부예배(중부) 오후 4:00  
100부예배(중부) 오후 5:00  
101부예배(중부) 오후 6:00  
102부예배(중부) 오후 7:00  
103부예배(중부) 오후 8:00  
104부예배(중부) 오후 9:00  
105부예배(중부) 오후 10:00  
106부예배(중부) 오후 11:00  
107부예배(중부) 오후 12:00  
108부예배(중부) 오후 1:00  
109부예배(중부) 오후 2:00  
110부예배(중부) 오후 3:00  
111부예배(중부) 오후 4:00  
112부예배(중부) 오후 5:00  
113부예배(중부) 오후 6:00  
114부예배(중부) 오후 7:00  
115부예배(중부) 오후 8:00  
116부예배(중부) 오후 9:00  
117부예배(중부) 오후 10:00  
118부예배(중부) 오후 11:00  
119부예배(중부) 오후 12:00  
120부예배(중부) 오후 1:00  
121부예배(중부) 오후 2:00  
122부예배(중부) 오후 3:00  
123부예배(중부) 오후 4:00  
124부예배(중부) 오후 5:00  
125부예배(중부) 오후 6:00  
126부예배(중부) 오후 7:00  
127부예배(중부) 오후 8:00  
128부예배(중부) 오후 9:00  
129부예배(중부) 오후 10:00  
130부예배(중부) 오후 11:00  
131부예배(중부) 오후 12:00  
132부예배(중부) 오후 1:00  
133부예배(중부) 오후 2:00  
134부예배(중부) 오후 3:00  
135부예배(중부) 오후 4:00  
136부예배(중부) 오후 5:00  
137부예배(중부) 오후 6:00  
138부예배(중부) 오후 7:00  
139부예배(중부) 오후 8:00  
140부예배(중부) 오후 9:00  
141부예배(중부) 오후 10:00  
142부예배(중부) 오후 11:00  
143부예배(중부) 오후 12:00  
144부예배(중부) 오후 1:00  
145부예배(중부) 오후 2:00  
146부예배(중부) 오후 3:00  
147부예배(중부) 오후 4:00  
148부예배(중부) 오후 5:00  
149부예배(중부) 오후 6:00  
150부예배(중부) 오후 7:00  
151부예배(중부) 오후 8:00  
152부예배(중부) 오후 9:00  
153부예배(중부) 오후 10:00  
154부예배(중부) 오후 11:00  
155부예배(중부) 오후 12:00  
156부예배(중부) 오후 1:00  
157부예배(중부) 오후 2:00  
158부예배(중부) 오후 3:00  
159부예배(중부) 오후 4:00  
160부예배(중부) 오후 5:00  
161부예배(중부) 오후 6:00  
162부예배(중부) 오후 7:00  
163부예배(중부) 오후 8:00  
164부예배(중부) 오후 9:00  
165부예배(중부) 오후 10:00  
166부예배(중부) 오후 11:00  
167부예배(중부) 오후 12:00  
168부예배(중부) 오후 1:00  
169부예배(중부) 오후 2:00  
170부예배(중부) 오후 3:00  
171부예배(중부) 오후 4:00  
172부예배(중부) 오후 5:00  
173부예배(중부) 오후 6:00  
174부예배(중부) 오후 7:00  
175부예배(중부) 오후 8:00  
176부예배(중부) 오후 9:00  
177부예배(중부) 오후 10:00  
178부예배(중부) 오후 11:00  
179부예배(중부) 오후 12:00  
180부예배(중부) 오후 1:00  
181부예배(중부) 오후 2:00  
182부예배(중부) 오후 3:00  
183부예배(중부) 오후 4:00  
184부예배(중부) 오후 5:00  
185부예배(중부) 오후 6:00  
186부예배(중부) 오후 7:00  
187부예배(중부) 오후 8:00  
188부예배(중부) 오후 9:00  
189부예배(중부) 오후 10:00  
190부예배(중부) 오후 11:00  
191부예배(중부) 오후 12:00  
192부예배(중부) 오후 1:00  
193부예배(중부) 오후 2:00  
194부예배(중부) 오후 3:00  
195부예배(중부) 오후 4:00  
196부예배(중부) 오후 5:00  
197부예배(중부) 오후 6:00  
198부예배(중부) 오후 7:00  
199부예배(중부) 오후 8:00  
200부예배(중부) 오후 9:00  
201부예배(중부) 오후 10:00  
202부예배(중부) 오후 11:00  
203부예배(중부) 오후 12:00  
204부예배(중부) 오후 1:00  
205부예배(중부) 오후 2:00  
206부예배(중부) 오후 3:00  
207부예배(중부) 오후 4:00  
208부예배(중부) 오후 5:00  
209부예배(중부) 오후 6:00  
210부예배(중부) 오후 7:00  
211부예배(중부) 오후 8:00  
212부예배(중부) 오후 9:00  
213부예배(중부) 오후 10:00  
214부예배(중부) 오후 11:00  
215부예배(중부) 오후 12:00  
216부예배(중부) 오후 1:00  
217부예배(중부) 오후 2:00  
218부예배(중부) 오후 3:00  
219부예배(중부) 오후 4:00  
220부예배(중부) 오후 5:00  
221부예배(중부) 오후 6:00  
222부예배(중부) 오후 7:00  
223부예배(중부) 오후 8:00  
224부예배(중부) 오후 9:00  
225부예배(중부) 오후 10:00  
226부예배(중부) 오후 11:00  
227부예배(중부) 오후 12:00  
228부예배(중부) 오후 1:00  
229부예배(중부) 오후 2:00  
230부예배(중부) 오후 3:00  
231부예배(중부) 오후 4:00  
232부예배(중부) 오후 5:00  
233부예배(중부) 오후 6:00  
234부예배(중부) 오후 7:00  
235부예배(중부) 오후 8:00  
236부예배(중부) 오후 9:00  
237부예배(중부) 오후 10:00  
238부예배(중부) 오후 11:00  
239부예배(중부) 오후 12:00  
240부예배(중부) 오후 1:00  
241부예배(중부) 오후 2:00  
242부예배(중부) 오후 3:00  
243부예배(중부) 오후 4:00  
244부예배(중부) 오후 5:00  
245부예배(중부) 오후 6:00  
246부예배(중부) 오후 7:00  
247부예배(중부) 오후 8:00  
248부예배(중부) 오후 9:00  
249부예배(중부) 오후 10:00  
250부예배(중부) 오후 11:00  
251부예배(중부) 오후 12:00  
252부예배(중부) 오후 1:00  
253부예배(중부) 오후 2:00  
254부예배(중부) 오후 3:00  
255부예배(중부) 오후 4:00  
256부예배(중부) 오후 5:00  
257부예배(중부) 오후 6:00  
258부예배(중부) 오후 7:00  
259부예배(중부) 오후 8:00  
260부예배(중부) 오후 9:00  
261부예배(중부) 오후 10:00  
262부예배(중부) 오후 11:00  
263부예배(중부) 오후 12:00  
264부예배(중부) 오후 1:00  
265부예배(중부) 오후 2:00  
266부예배(중부) 오후 3:00  
267부예배(중부) 오후 4:00  
268부예배(중부) 오후 5:00  
269부예배(중부) 오후 6:00  
270부예배(중부) 오후 7:00  
271부예배(중부) 오후 8:00  
272부예배(중부) 오후 9:00  
273부예배(중부) 오후 10:00  
274부예배(중부) 오후 11:00  
275부예배(중부) 오후 12:00  
276부예배(중부) 오후 1:00  
277부예배(중부) 오후 2:00  
278부예배(중부) 오후 3:00  
279부예배(중부) 오후 4:00  
280부예배(중부)



100%  
천연성분

## 당뇨! 당뇨는 원인치료가 해답입니다!

당뇨! 원인 기능 개선제

PRO-Z  
GOLDSpecial  
Price

✓ 미국 독점 출시 기념 파격 세일

1병 \$89 + tax 3병 \$249 + tax 6병 \$474 + tax

송해선생님이 자신있게 추천하는 프로지골드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이 강화된 PRO-Z GOLD

## 당뇨병의 원인?

혈액 속의 포도당 수치, 즉 혈당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태가 지속할 때를 말합니다. 음식을 섭취 후 혈액으로 들어온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췌장 베타세포에서 나오는 인슐린이란 호르몬이 필수입니다. 만약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분비된 인슐린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 당뇨병의 치료방법은 있는가?

당뇨병은 조절은 할 수 있으나 완치는 불가능하며 단지 당뇨병의 진행을 정지시키고, 동시에 당뇨로 인한 합병증의 발생 및 진전을 예방하는 것이 일반이론입니다. 현재 당뇨 환자들이 주로 복용하는 당뇨약들은 천연물질이 아닌 화학물질로 장기 복용 시 심각한 부작용(심장부종, 신장부종, 간독성)과 방광암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유수의 대학의 연구팀들의 연구결과로 드러났습니다.

송문기 박사팀은 근육세포의 당대사와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 되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12주동안 프로지(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감소, 70%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Source: Metabolism, Vol 47, No 1(January), 1998: pp 39-43 미국특허 # 5,411,748 and #5,997,908

## 당뇨병 회복의 새로운 메카니즘 '프로지'

'프로지'는 혈당강하제와는 달리 당뇨의 근본원인(인슐린 저항성 및 췌장 베타세포 파괴에 인한 인슐린 분비기능저하)을 해결하는 메커니즘이입니다. 당뇨병의 원인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면역력이 저하됨으로써 생긴 결과입니다.

아연은 면역력 강화에 중요한 필수미네랄입니다. 포도당을 세포까지 운반하는 역할을 인슐린이 하는데, 당뇨 환자들은 혈액 속에 여러 가지 요인(비만, 과음, 운동부족, 스트레스)에 의해 인슐린 반응도가 낮고, 인슐린 저항성이 높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IDE(Insulin Degradation Enzyme)라는 소화효소가 필수적인데 이 소화효소의 주성분이 아연이며, 아연은 췌장 베타세포에서 인슐린 저장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신 합성물질(CHP Plus Zinc) 프로지는 우리 몸속에서 근육과 지방세포로 아연을 운반하여 아연의 신진대사 활성화를 통한 인슐린수용체의 활성화 및 인슐린 수용체의 생성을 촉진함으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합니다.

## 아연이 당대사와 밀접하다면, 왜 아연으로 만든 당뇨약은 없나요?

아연은 특성상 섭취 시 인체 내에 머무르는 시간이 짧고 흡수율이 떨어진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음식에도 굴이나 소고기 등에 아연이 존재하지만, 섭취 후 3~4시간이면 소변으로 배출되고 몸에 흡수가 안 되는 것입니다. 아연이 췌장 세포 기능 복원이나, 근육세포의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해당 세포내 아연흡수율이 획기적으로 증가하여야 성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계는 지금까지 아연 흡수율 제고 물질이나 방법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송문기 박사의 신합성물질 '프로지'는 동물의 전립선에서 추출한 물질(CHP)을 아연을  
칼레이트시킴으로써 아연이 일정시간 인체에 머물며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당의 대사를 도와 몸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송문기 박사와 연구팀은 한국인 최초로 미 정부 지원으로 이 기술을 개발해  
특허를 취득하고 당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 PRO-Z

한국 50만병 판매 SALE

1병 \$69 + tax 3병 \$179 + tax 6병 \$342 + tax

타주 대리점 및  
프로지셀러모집중213.434.1170  
www.prozusa.com prozusa1@gmail.com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PRO-Z USA Inc.

미국 공식 판매처





● 3·1절 특별기고

## 3·1운동의 민족의 자주독립 정신 이어받자

### 통합된 선진 민주 사회 실현 하고 한반도 자유 통일 이루자.

올해는 기미년 3월 1일 우리 겨레가 일제의 탄압과 포악한 식민 지배에 항거하여 자주 독립을 선언하고 만세 운동을 벌인 지 97년이 된다.

1919년 3월 1일 민족 대표 33인은 서울시에 있는 태화관에 모여 독립통고서를 조선총독부에 보내고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뒤 모두 일본 경찰에 스스로 체포되었다. 학생들은 탑골공원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뒤 시내를 행진하며 대한독립 만세를 불렸다.

이 운동은 거의 석 달 동안 전국 도시와 농촌으로 퍼져갔고 일본, 연해주, 및 미국 등 해외에서도 1년 동안 지속되었

다. 이 운동은 중국의 5·4 운동, 인도의 반영운동 및 베트남, 필리핀, 이집트의 독립운동 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쳤다.

이와 같이 3·1운동은 한국인의 자유, 평등, 존엄성 및 자주권 등의 기본권을 되찾으려는 민족적 의지를 세계에 천명하고 아시아 공영을 통해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자 한 비폭력 저항 운동이었다.

이 운동은 상해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되는 모태가 되었고 대한민국 건국의 바탕을 이루는 정신이 되었다. 우리 사회는 이러한 3·1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가고 오늘에 되살리는 사명을 갖고 있다.

그 구체적 방안으로 살룸을 꿈꾸는 나비행동은 다음 몇 가지를 제안한다.

기/독/일/보와 함께 하는

# 복새통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잠언 8:10)

책으로 통하는  
새로운 세상



## 신간 추천

### 예수, 내게 묻다

김지철 | 두란노 | 224쪽

모든 질문의 답인 예수를 만나는 예술을 만나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을 때, 지금은 '나'를 향해 묻고 계신다. 우리의 생각과 물음을 잠시 내려놓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건네는 물음을 들어야 할 때이다. 이 책은 습관처럼 신앙생활을 지속하고 있는 성도를 일깨워 준다. 또 궁극적인 질문을 통해 신앙과 삶에 대해 학습하고 진정한 신앙의 힘과 능력을 발견하게 한다.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와 지식을 얻게 한다.



### 탕자교회

제라드 윌슨 | 생명의말씀사 | 304쪽

교회에서 행하는 사역들은 궁극적으로 복음이 중심되어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교회의 사역에서는 복음을 찾아볼 수가 없다. 사람들의 취향과 관심에 맞추어 그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 사역에 집중할 뿐이다. 이 책은 사람들에게 교회를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해 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것들,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옳다고 확신하는 모든 것을 다니며 점검하고 평가하고 제안한다.



### 토박이 신양산맥2

전택부 | 홍성사 | 3088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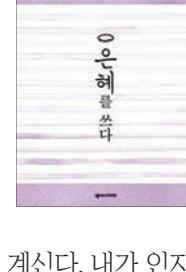
드러나지 않았지만 깊고 올곧은 삶과 신앙의 생명력의 전택부 선생에게 다시 듣는 '토박이 정신'. 왜 토박이 신양인가? 토박이 선비 정신 없이는 올바른 예수쟁이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저자는 우리 민족의 '한(韓)' 정신의 실체와 핵심을 분석·정리하면서, 우리를 우리답게 하는 것들이 잊히고 왜곡되는 현실을 질타하며, 내재된 토박이 정신을 거울삼아 한 국 교회의 맹성(猛省)을 촉구하고 있다.



### 은혜를 쓰다

넥서스CROSS 성경팀 | 넥서스CROSS | 244쪽

은혜를 쓴다는 것은 은혜를 기록한다고 읽을 수도 있지만 은혜를 입는다라고 읽을 수도 있다. 또 흘려보낸다는 뜻도 된다. 하나님은 지금 내게 말씀하고 계신다. 또한 아주 가까이 계신다. 내가 인지 하든 그러지 못하든, 느끼든 그러지 못하든.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신지 살피며 따라가 보라. 말씀에 머물러 보라. 충분히 머물러 보라. 이 책이 말씀에 머물도록 도와줄 것이다.



## REVIEW

### 구입문의

LA : 조이기독교백화점 T. (213)380-8793

OC : 생명의 말씀사 T. (714)530-2211

## “속 시원한 깨달음을 마셔라”

### 신앙의 갈증을 푸는 62가지 지혜

“목마른 이에게 건네는 열두 모금 생수”

“예수님을 부인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더 사랑하기에 교회를 떠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미 가나안 성도가 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다가 눈에 들어온 것이 페이스북입니다. ‘목마를 텐데… 외로울 텐데… 복음이 아니면 그 목마름과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없을 텐데…’ 그 생각으로 새벽마다 페이스북에 짧은 글을 쓰기 시작한 것이 ‘열두 줄의 새벽 말씀 북상’입니다.” <프롤로그 중에서>

이 책은 답답함에 명쾌하게 “답”하며 속 시원한 깨달음을 마실 수

있는 신앙의 갈증을 푸는 62가지 지혜를 담고 있다.

서로가 진리라 우기며 쏟아져 나오는 메시지들 사이에서 우리는 무엇을 마실 것인가? 우리의 갈증을 풀 수 있는 것은 술이나 탄산음료가 아니다. 오직 ‘생수’만이 해갈의 기쁨을 선사한다.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이 영혼을 새롭게 한다.

잘나가던 한 언론인이 주님을 만나 목사가 된 후 발견한 것은 ‘성도들의 진리를 향한 갈증’이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성도. 이미 가나안 성도가 되어 교회와 세상 사이에서 서성거리는 성도들. ‘목마를 텐



열두 모금 생수

조정민

두란노 | 276쪽

데… 외로울 텐데… 복음이 아니면 그 목마름과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없을 텐데…’ 그 생각으로 매일 새벽 페이스북에 12줄의 짧은

글을 쓰기 시작했다. 그렇게 2만 5천 팔로워가 이 생수를 마셨고, 해

갈의 기쁨을 누렸으며, 다시 주님 앞으로 마음을 돌이켰다. 《열두 모금 생수》는 입에서 입으로 소문이나 SNS에서 SNS로 퍼 나르던 주

옥 같은 저자의 북상 글을 모았다. 《생명의 삶》을 기반으로 한 저자의 북상은 종일 눈과 귀를 피곤하게 하던 수많은 메시지 틈새에서 빛이 되어 잠든 영혼을 깨웠다. 빛은 어둠이 있기에 더욱 빛난다. 지금 담 없는 세상에서 답답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가. 진리를 가장 한 세상의 넘치는 해법들에 진력 나지는 않았는가.

《열두 모금 생수》를 통해 진정

한 해갈의 기쁨을 누리기 바란다.

저자 조정민은 25년 동안 언론인으로 열정을 불사르던 저자는 생명의 길인 예수님을 만난 후 사랑의 공동체에 대한 꿈을 품고 목사의 길로 들어섰다. 목회자로,

또 선교 방송국 사장으로 일하다 2013년부터 새로운 공동체인 베이직교회를 섬기고 있다.

그는 술한 종교적 방황을 통해서 예수님의 진리임을 확신하게 되었고, 이 시대가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한다. 또 트위터 광장, 페이스북 우물가에서 인생의 길을 읽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이영인 기자



번역 · 주석 고영민

(前 백석문화대 총장)



히브리어·헬라어 성경 원문을 알기 쉽고 정확하게 번역,  
전통적인 해석 원리에 의해 성경적으로 주석한 하나님의 말씀

한국 선교 130주년을 기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우리말로 옮겨 놓은 聖經 翻譯의  
決定版!

새 시대, 현대 신양인을 위해 누구든지 쉽게 성경을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오랜 기간 체계적인  
기획 하에 출간된 劃期的 力作!

한국교회의 신양과 신학을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어나갈 성경 주석의 源泉의 寶庫!



- 1. 전통적, 성경적 해석 원리에 의한 주석
- 2. 성경 해석의 기본 체계를 삼위일체론으로 강해
- 3. 원문을 축자적으로 정확하게 번역, 수용 언어로 알기 쉽게 전달
- 4. 신학의 학문성과 주석의 창조성을 최대한으로 높임
- 5. 학자들의 다양한 견해를 성경적으로 평가, 결론 내림
- 6. 구속사의 맥을 따라 원어와 문장 등을 명확하게 설명
- 7. 성경 시대의 배경들을 입증하기 위해 다양한 재료들 인용
- 8. 성경의 기본 자료인 고대 사본들을 세밀하게 비교, 대조
- 9. 성경 지리와 고고학, 문화, 풍습 등을 현장 답사 경험을 통해 생생하게 묘사
- 10. 원어와 동의어, 반대어, 동음이의어를 상세히 기술
- 11. 성경 본문을 성경연구와 설교준비를 위해 내용별로 분해
- 12. 43개 번역본들을 통해 성경의 다양한 번역 가능성을 제시

## “예수 처형 앞장섰던 로마군의 시선으로 본 ‘부활’”

부활절 앞둔 개봉작…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제작진의 작품



영화 ‘부활’ 중 한 장면. ©영화사 제공

피로 물든 예루살렘의 골고다 언덕. 로마군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의 시신을 돌무덤에 봉인하고, 누구의 접근도 허락하지 않는다. 하지만 3일 뒤, 예수의 시신은 흔적 없이 사라지고, 예수가 로마에게서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 메시아로 부활했다는 희망의 소리가 점차 거세진다. 예수의 시신을 찾아야만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는 로마군의 수장 클라비우스(조셉 파인즈)는 보좌관 루시우스(톰 펠튼)와 함께 사라진 예수의 3일간의 행적을 뒤쫓기 시작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둘러싼 ‘십자가 기적’의 새로운 이야기를 담은 기독 서사 대작 영화 <부활>이, 부활절을 앞둔 3월 17일 한국 관객들에게 찾아 간다.

영화 <부활>은 국내에서만 250만 이상의 관객을 동원하는 등 전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제작진의 작품으로 주목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장엄한 스케일의 명작으로 영화 팬들에게 큰 사랑을 받은 <워터 월드>의 케빈 레이놀즈 감독도 참여해 한층 더 웅장하고 강력한 드라마를 완성시켰다.

영화 <부활>과 기존 기독교 작품들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기독교인’이 아니라 ‘신을 믿지 않는 로마군’의 시선으로 바라본 십자가의 기적을 그려냈다는 점이다. 영화는 예수 처형에 앞장섰던 클라비우스

와 루시우스가 사라진 예수의 흔적을 찾는 임무를 맡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았다.

케빈 레이놀즈 감독은 “기존의 작품들과는 색다른 방식의 이야기를 만들고자 했다. 마치 탐정 스릴러와 같은 느낌으로 사건에 다가서며, 관객들이 주인공과 함께 그의 행적을 따라가게 만들고 싶었다”고 차별화된 영화의 제작자 디키 리델은 2008

영화는 예수의 기적적인 죽음과 부활을 중심으로, 메시아의 존재를 부정하고 오직 자신과 전쟁의 신 외에는 그 무엇도 믿지 않은 클라비우스의 시선을 따라간다. 정치적·종교적 목적이 아니라 단지 군인으로서 명령에 따라 예수의 시신을 찾아나서는 클라비우스의 모습은, 신앙을 갖고 있는 종교인뿐 아니라 비종교인들 모두에게 공감하고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준다.



영화 ‘부활’ 중 한 장면. ©영화사 제공

년부터 작품 구상에 들어갔고, “관객들에게 ‘신선하면서도 새로운, 고대를 경험할 수 있는 이야기’를 들려 줘야 한다”는 케빈 레이놀즈 감독의 생각에 동의하여 이 영화를 탄생시켰다.

클라비우스 역의 조셉 파인즈는 “성경의 이야기와 죽음에 얹힌 미스터리가 촘촘히 엮인 서사의 구조가 흥미로웠다.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이야기에 눈을 뗄 수 없었다.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본 예수의 부활은, 모든 죽음의 미스터리와도 깊이 연관되어 있다”고 했다.

배급사 측은 영화에 대해 “기존의 종교 영화와는 차별화된 시선으로 접근해 기독교인들에게는 새로운 은혜와 감동을, 비기독교인들에게는 신의 존재에 대한 질문의 답을 제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은애 기자

## “종교통합 주장 WCC”

잃은 영혼에 대한 아픔이나?

선교신학연구소(Institute for Mission and Theology·IMT)가 「WCC와 가톨릭의 종교연합운동 연구」를 출간했다.

이 책은 연구소 신학선교연구분과 연구원들을 중심으로 연구·발표한 논문집의 성격이며, 「WCC 선교신학 연구」에 이은 IMT 시리즈 두 번째 책이다.

책을 편집한 IMT 소장 이동주 박사는 머리말에서 “2013년 10월 개최된 ‘제10차 WCC 부산총회’는 유달리 개최 찬성 측과 반대 측이 심각한 갈등을 빚으면서 대회 기간 동안 연일 반대 시위가 가라앉지 않았고, 28개 신학대 총장들이 현장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규탄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동주 박사는 “복음주의 입장에서 파악한 WCC 신학의 문제점은 성경적 신앙에서 벗어난 종교다원주의, 동성애 수용, 용공 등의 문제 만이 아니”라며 “WCC는 종교통합 운동 내지 부산총회에서 선언한 ‘우주연합운동’ 등을 통해 로마가톨릭 안으로 들어가고자 함으로써, 적그리스도 시대를 사는 복음적 교회에 고통스러운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동주 박사는 책에서 ‘WCC 부산총회와 종교다원주의’, ‘가톨릭 교리의 몇 가지 독특성에 관한 성경적 고찰’, ‘WCC의 교회관과 선교관: WCC의 Missio Dei 신학을 중심으로’ 등 세 편의 글을 썼으며, 이 내용들은 본지에도 일부 소개된 바 있다.

이 박사는 “WCC는 잃은 영혼에 대한 아픔이나 구원의 메시지를 전파하려는 시도는 없고, 성경적·전통적 신앙고백과 동시에 종교다원주의적·자기기만적 이중고백에 취해 있다”고 했다.

또 “WCC는 성령의 감격이나 하나님께로의 진정한 회개,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 없이 오직 이웃과의 평화와 돌봄의 행위들을 촉구하고, 오직 인류와의 ‘가시적 연합’을 위해 종교라는 이름을 가진 모든 종파들을 가시적 통합체로 더 크고 광범위하게 혼합하면서 뭉쳐가고 있다”고 전했다.

또 “20세기 후반부터 WCC와 가톨릭은 기독교 밖의 정치·경제 통합운동과 병행하여 세계연합운동을 추진하고 있다”며 “특히 이번 부산총회에서는 모든 종교와의 일치를 포함한 ‘우주연합’의 동향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WCC는 니케아-콘스탄티노플 신조를 갖고 있지만 믿음



WCC와 가톨릭의 종교연합…  
이동주  
CLC | 304쪽

이나 행위에 대해 아무 신조에도 구속받지 않으므로 니케아 신조와 종교다원주의를 동시에 고백할 수 있고, 1970년대 WCC 대회 프로그램 책임자들처럼 기독론·성령론·구원론·교회론을 늘리고 확장시켜 불신자들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교리를 만들고자 한다”며 “그러나 가톨릭은 교황의 수위권부터 화체설, 죽은 자들과의 교제신앙 등 특수한 전통을 결코 버리지 않으려 하므로, 결과적으로 교리 수호에 관심이 없는 WCC가 가톨릭에 흡수통합될 가능성이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WCC 대회에 적극 참석한 한국교회에 대해선 “일부 복음주의 단체들이 자발적으로 WCC 단체 속으로 뛰어들어갔고, 상징적 복음주의 지도자들이 WCC의 거대한 후원자들이 되면서 그들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도 무비판적으로 WCC의 신앙과 신학적 흐름을 탈 것”이라며 “WCC 부산총회 이후 한국교회 연합운동은 세속적 연합운동과 성경적 연합운동으로 분화될 것”이라는 말로 현재 한국교회 연합운동의 난맥상을 예측하기도 했다.

이 외에 WCC 총회에 직접 참가한 유경석 목사(베네스다교회)가 ‘WCC 부산총회 주제인 <생명>에 관한 고찰’과 ‘WCC 교회일치운동과 성경적 교회연합운동’, 박영호 박사(전 한국성서대 교수)가 ‘WCC 부산총회에 대한 신학적 평가’, 권혁찬 목사(전 필리핀 선교사)가 ‘WCC 부산총회의 일치운동이 세계 선교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각각 전했다.

특히 피터 바이어하우스 박사(전 독일 튜빙겐대학교 교수)의 논문인 ‘젠더 이데올로기에 대한 대항: 세주요 교단 기독교인들의 공동 성명’을 마지막으로 신고 있다.

이대웅 기자

## 북한간부의 하나님을 만나기까지와 순교한 스토리

- 우리들의 회개와 동족들의 마음을 얻어 통일의 꿈을 줄 두 권의 책 -



- 구입: 미주두란노와 기드온동족선교회 (\$20/권당)
- 문의: (425) 775-7477, www.gideonbrothers.org  
gbmwusa@gideonbrothers.org (온라인주문가능)
- 주소: GBMW (체코오더명과 우편수취명 동일)  
16825-48th Ave, W. #345 Lynnwood, WA 98037



이를 통해 “WCC는 니케아-콘스탄티노플 신조를 갖고 있지만 믿음

## 쉽게 하는 세제 에미나 99 꼭 사용합시다.



### 항산화 세제 “에미나 99”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

1. 친환경 무공해 세제로 건강을 지킵니다. (아토피, 피부염, 상처, 가려움증)
2. 지구를 정화시킵니다. (이산화 탄소, 다이옥신 제거, 방사선 감마선 20% 감소)
3. 세제 비용을 1/3정도 줄여 경제적입니다. (4인 가정 화학세제 년 약 \$200.00 지출)
4. 물을 절약합니다. (세탁 시 한번 만 헹구면 건강에 좋고, 사용한 물은 식물에 거름이 되고, 하수구 정화됨)

자매품 : 물돌, 밥돌, 튀김돌, 생생팩, 신비의물통, 세수비누, 샴푸, 로션, 크림은 모두 항산화 용액을 넣어 만든 제품으로, 산화를 막아주는 세계 유일의 특유한 제품입니다.

### 사용 효과

- 세탁 시 유연제 필요없고, 정전기 방지되고, 보송보송한 건강에 좋은 세탁물이 됨
- 고무장갑 없이 설거지 하면 피가 더 잘 통하고, 기름기 잘 지워짐
- 청소(화장실 변기, 옥조, 마루, 가구, 가전제품, 식당, 후드, 세차) 시에 화학물질이 없어지고, 이산화탄소를 없애 공기를 정화시킴
- 애완동물 목욕, 어항 수질 유지와 뿐리면 집안의 모든 냄새를 없앰
- 농작물에 적은량을 뿐리면 주변 진딧물과 병충해가 없고 수확이 3배 이상이 되며 무공해 농사를 지을 수 있음(꽃에 뿐리면 빨리 시들지 않음)
- 양치질, 활성산소 제거, 정전기 방지, 신선도 유지, 에너지 절감, 해충기피, 습도조절, 결로방지, 곰팡이 제거



**Yirrh Healthy Living Co. 이레 건강**

833 S. Western Ave. #15, LA, CA 90005(로데오 갤러리아)

인터넷 “약손 나손” 검색 Tel:323)316-6815

## How Can the Church Bring Back the 'Dones' and 'Nones'? Pastoral, Academic, Lay Leaders Weigh In

BY RACHAEL LEE

A group of some 80 Christian pastoral, academic, and lay leaders gathered at Young Nak Celebration Church's Jefferson campus on Saturday to discuss how the church could bring back to church the 'dones' and the 'nones' -- those who either left the church, or those who say they don't affiliate themselves with any religion.

They gathered for the Institute of Asian American Christianity (ISAAC)'s 7th Symposium, titled, "Christianity Next: the Dones and the Nones?" where Richard Mouw, the president emeritus of Fuller Theological Seminary gave a keynote address, six speakers were featured for a panel, and attendees split into smaller groups to discuss the issues more in detail.

A running theme throughout the symposium was that those 'nones' and 'dones' must not be condemned, but understood, and that the church as a whole must provide a space for those who have questions about the faith to be able to discuss or explore those questions in a safe environ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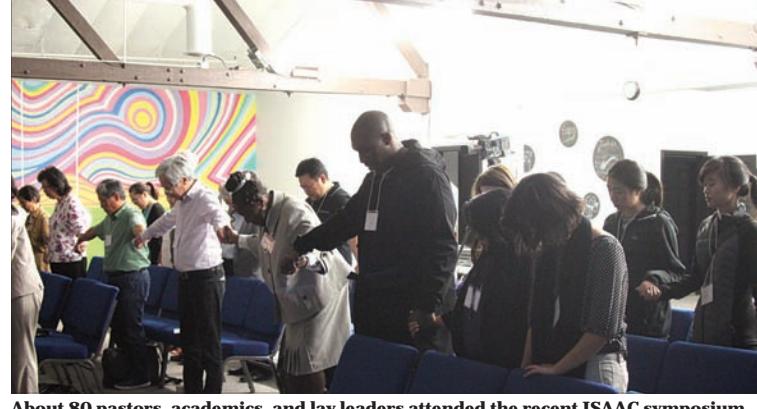
Indeed, some shared during the small group discussions of how they felt they were unable to come to people in the church with their doubts or questions.

"I wanted to talk about racial and social justice issues, but I didn't feel comfortable to do so at my church," shared one young woman in her 20s at one of the breakout groups.

Irene Cho, the program manager for the Fuller Youth Institute (FYI), said she was even fired from her church for allowing certain behaviors within her youth group. For example, many of her youth



Panelists shared their thoughts at ISAAC's 7th Symposium. (Photo courtesy of ISAAC)



About 80 pastors, academics, and lay leaders attended the recent ISAAC symposium.

whom she was pastoring at the time had struggles with smoking cigarettes. She had expressed to them that she is against them smoking and encouraged them to quit smoking. But when the youth group went on a retreat, she told them to let her know if they felt they could not win the urge to smoke at the retreat site, and that she would drive them out to a location where they could smoke and come back.

"Isn't it better for them to know that I am walking with them in their struggles, rather than giving them a black and white, yes or no,

structure?" Cho asked.

"When I talked with some of them later on, they weren't going to church anymore, but they would tell me, 'If I did go back to church, I wish it was like how our youth group was with you,'" she recalled.

Kay Higuera Smith touched upon the impact of leaders in the church, and the weight of their position in terms of leading the body. They must be held accountable and even sometimes rebuked when necessary, she said.

One middle-aged woman in

structure?" Cho asked.

"When I talked with some of them later on, they weren't going to church anymore, but they would tell me, 'If I did go back to church, I wish it was like how our youth group was with you,'" she recalled.

Kay Higuera Smith touched upon the impact of leaders in the church, and the weight of their position in terms of leading the body. They must be held accountable and even sometimes rebuked when necessary, she said.

One middle-aged woman in

## 110 Years After Azusa St. Revival, New Hopes Arise for 'Azusa Now'

BY RACHAEL LEE

The Call is planning for an all-day revival gathering at the Los Angeles Memorial Coliseum with hopes for a revival like that of the Azusa Street Revival that took place on 1906, and Korean Christians have been invited to kick off the gathering.

"We're not looking for an event," said Lou Engle, the founder of The Call. "We want a breakthrough."

The Call has hosted numerous gatherings of fasting and prayer over the years for youth and young adults, including one that took place in Washington, D.C. that gathered some 400,000 people in the year 2000.

The upcoming gathering, called 'Azusa Now,' is set to take place on April 9 from 7:30 AM to 10 PM, and has a slight "shift" in focus, according to Engle. Whereas previous gatherings hosted by The Call focused on prayer and fasting, the upcoming gathering will also focus on "the preaching of the gospel, and signs and wonders," Engle said.

Yet another aspect that sets this upcoming gathering apart from the previous gatherings hosted by The Call is its intentional focus on gathering an ethnically diverse group.

Just as the Azusa Street Revival in the early 20th century brought together African American and White Americans, Engle said, unity within the church across races and denominations must occur for revival today.

"Somewhere between 1909-1913, William Seymour prophesied that in 100 years another wave of revival would come that far eclipsed what took place at the original Azusa Street Revival," said Azusa Now organizers in a statement.

"We are asking the Holy Spirit to truly and deeply unite Anglo, African American, Asian, Hispanic, Native American -- every tribe and tongue -- in a holy, historic convocation where once again, surrounded by crisis and division in our land, it could truly be said: 'The blood of Jesus washed away the color line at Azusa!'" organizers

continue. "Only a united church can heal a divided nation!"

Various ethnic groups will be leading different segments of the upcoming gathering. Korean Christians specifically will be leading the first segment of the day in Korean from 7:30 to 8:10 AM, and translation will be provided through devices throughout the entire course of the day.

"Revival is not an option for us," Engle said, "and we ask that the Korean church brings its redemptive gift. Lead us in the morning with your gift."

Azusa Now organizers decided to reach out to the Korean church leaders after encountering them and seeing them pray at numerous prayer gatherings that took place over the past several years in partnership with 'Line in the Sand,' including the most recent prayer gathering that Korean church leaders hosted in November of 2015, where Engle participated as one of the speakers.

"Those who were part of the Azusa Street Revival or the Pyongyang Revival would not have known the future impact of what they were a part of," said Reverend Yu Chul

Smith's breakout group shared openly about an experience she had in which she was kicked out of her church when she was 23. She said she hadn't felt ready to commit to another church for five years after that experience, due to the betrayal and hurt that she felt.

"When I was 28, I finally felt ready to recommit to a body," she explained, "because I wanted to obey God's word to be a part of the body. I learned not to trust my pastors, but to love them."

"There is a tendency to feel it's sinful to criticize the pastor," Smith said in response, "but they are sometimes the most responsible and must be held accountable when they have done wrong."

Steve Choi also discussed the importance of having strong and committed leaders in the home and in the church. If there could be a strategy on how to revitalize or reimagine the church, he said he would focus on investing in the family and the church leaders.

Parents spend "18 years disciplining the child," Choi said. "Churches and other people may come and go, but parents will always be there."

Yet even within the church, there is a need for committed leadership, he added. "Ministry is tough. It is taxing," Choi said. But if leaders leave the church after short stints, it discredits the message that they preach to the congregation, he explained.

"We need to invest in raising up good leaders in the church -- not just book smart or theologically smart. But really good leaders who are men and women of humility, integrity, who are in it for the long haul."

## Korean World Missions Conference to Take Place in Los Angeles

BY JUNHYEONG KIM  
TRANSLATED BY RACHAEL LEE

Known as the 'Olympics' of Korean missionaries all over the world, Korean World Mission Conference (KVMC) will be taking place in Los Angeles for the first time in its almost 30-year history. KVMC, which takes place once every four years, had always taken place at Wheaton College near Chicago since its beginnings in 1988, but this year the conference location has moved to Los Angeles. The conference dates, which were usually in July, have also been pushed earlier to June.

Reverend Suk-Hee Ko, who is the secretary-general of the New York headquarters of the Korean World Mission Council for Christ, came to Los Angeles on March 1, about three months before the conference, to introduce the conference and encourage Korean churches to support and participate in the conference.

"We decided to move the conference location from the Midwest to the Southwest due to requests from our missionaries," explained Ko at the press conference on Tuesday.

"Our lineup of speakers are experts in various different topics," Ko continued, "and I expect that everyone who attends will be challenged."

"I believe it will be an opportunity for missionaries to be recharged, and for local church pastors to rediscover their calling in missions," said Reverend Paul Ki-Hong Han, the senior pastor of Grace Ministries International and the lead organizer of the conference.

Organizers predict that some 1,200 to 1,500 missionaries will attend this year's conference along with some 4,000 local church pastors and congregants.

As a result, the organizers hope that local church pastors and leaders would be challenged once again to participate in world missions. This year's lineup of speakers include Loren Cunningham, the founder of Youth With A Mission (YWAM); David Ross, the president of YWAM's Antioch Institute for International Ministries; Paul Eshleman, the vice president of coverage at Campus Crusade for Christ; Todd Johnson, the director of the Center for the Study of Global Christianity at Gordon-Conwell Theological Seminary; and Michael Oh, the executive director and CEO of the Lausanne Movement, among others. Attendees will be able to listen to and meet with experts on world missions through 200 different seminars and forums at the conference.

The conference will be divided into separate Korean and English tracks, and will take place from June 6 to 10 at Azusa Pacific University. A children's missions conference will be taking place simultaneously as well, so organizers encouraged young couples to attend with their children.

A separate conference for members of Korean World Mission Council for Christ and another conference for children of missionaries will be taking place from June 3 to 6.



Local church pastors and organizers of 'Azusa Now' prayed together for the event.



Lou Engle, the founder of The Call, explained the vision behind 'Azusa Now.'

continue. "Only a united church can heal a divided nation!"

Various ethnic groups will be leading different segments of the upcoming gathering. Korean Christians specifically will be leading the first segment of the day in Korean from 7:30 to 8:10 AM, and translation will be provided through devices throughout the entire course of the day.

"Revival is not an option for us," Engle said, "and we ask that the Korean church brings its redemptive gift. Lead us in the morning with your gift."

Azusa Now organizers decided to reach out to the Korean church leaders after encountering them and seeing them pray at numerous prayer gatherings that took place over the past several years in partnership with 'Line in the Sand,' including the most recent prayer gathering that Korean church leaders hosted in November of 2015, where Engle participated as one of the speakers.

"Those who were part of the Azusa Street Revival or the Pyongyang Revival would not have known the future impact of what they were a part of," said Reverend Yu Chul

### Local Churches and Ministries

#### Christianity Daily

A ministry through journalism

For questions about advertising and donations

T.(213)739-0403 F.(213)402-5136

Sunday Celebration Services: 9 AM & 11 AM  
Wednesday College Fellowship: 7 PM

PASTOR JUSTIN KIM

Bethel English Church  
18700 Harvard Ave, Building C, Irvine, CA 92612  
T. (949) 385-3051 / [www.ocbethel.com](http://www.ocbethel.com)

Sunday Services: 9:30 AM & 11:30 AM  
Sunday School: 11:30 AM  
College Group Meetings: Fridays at 6 PM

PASTOR SUNG CHANG

Charis Mission Church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www.charis.church](http://www.charis.church)

Sunday Services: 11 AM & 12:30 PM

PASTOR HAROLD KIM

Christ Central of Southern California  
11841 178th St, Artesia, CA 90701  
T. (562) 246-0363 / [www.christcentralsc.com](http://www.christcentralsc.com)

# La Palma City Council Member Peter Kim: Voting Is 'Having a Voice'

BY RACHAEL LEE

La Palma City Council Member Peter Kim's journey with politics began at a young age, beginning with his internship at Congressman Ed Royce's office as a high school student. Kim also volunteered in Republican politics as a college student at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Kim previously worked for Assemblywoman Young Kim, when she was a commissioner on the President's Advisory Committee on Asian American Pacific Islanders (AAPI) for former President George W. Bush, and during her campaign for and term on the California State Board of Equalization. Kim also previously worked for La Palma City's Traffic Safety Committee, from which he was appointed to become a candidate for City Council in 2012.

**Q:** How did your interest in politics begin?

**A:** In high school, I was a part of the International Baccalaureate (IB) program, and I was not given the opportunity to have government class. And I just thought, 'This is crazy. Let me just find out who my Congressman is.' And it was Ed Royce at that time. I went to his website, and I saw all of these policies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And I just thought, 'Why does this White, male, conservative guy have so much interest for North Korean issues?' So I applied to be an intern and they accepted me as a high school student. And that's where it started.

Some members of my family are also involved in politics. Paul Song is very active in Democratic politics, and my sister, Sandra Lee, recently was elected onto the Cypress School Board. My sister's not much of a politician actually, but she's very passionate about education -- and that's the thing. Even though you may not like politics, if you are a great doctor, or attorney, or anything, you can leverage your skill sets. Whenever you're ready, you can be a part of government and use your talents in government. That's just one way you can serve the public.

**Q:** What's your faith background and how has it influenced your journey and your decisions?

**A:** I've been a Christian all my life. I know that it is God's plan, and that it wasn't an accident or coincidence that I have been able to meet various people that have helped me throughout my life.

**Q:** Many politically active Korean Americans tend to focus on immigration as a major issue that influences their votes. At the same time, Korean Americans who are also Christian may feel conflicted as their religious values tend to lean conservatively. How would you advise them on how to balance that dichotomy?

**A:** I think something that needs to be distinguished is that the Republican party is against *illegal* immigration. My parents came in the 1970s, and they are the beneficiaries of the policies of Nixon and Ford at the time. Whatever the solution is to address illegal immigration, policy-wise, there needs to be a way we need to make sure that those who follow the law are the ones who are accepted and able to

come to the U.S.

I do notice that the Korean church is very focused on social policies. Many churches have been gathering signatures to express their opposition against the transgender bathroom law in California recently. And I think it's good that the church cares about these issues and are active about what they believe is important. And ultimately, I think they should simply vote for whatever values they believe to be most important. Beyond three major issues that Christians may prioritize -- abortion, same-sex marriage, and transgender issues -- all of the issues that are being discussed, whatever is important to the church is important to everyone. We all want better jobs, and better infrastructure.

*You have to do your part in order to ... make the community stronger."*

**Q:** Over the years that you have been politically active, do you feel that there has been progress in having better representation of Korean American interests in terms of policies?

**A:** For me here in La Palma at least, I don't think I did anything specifically policy-wise that was just for the Korean American interests. We have done a lot of Korean American outreach, such as supporting the resolution to acknowledge Korean American Day. A Korean American church here provides their space for us and invites city employees to eat Korean food as well. We also send some of our city employees to South Korea through the Global Cooperation Society, which has an annual program where city employees in the U.S. can go to Korea. Our previous city manager had the opportunity to go, and it was her first time going to Korea, and experiencing the culture.

But on the local level, in terms of policy, everyone wants better infrastructure, stable economy, and a fiscally responsible government. We are more cognizant of reaching out to the Asian American community -- we're the first city to be majority Asian American.

And we are working on many different things regarding education here, such as focusing efforts to help our students go to La Palma City schools. It's important to focus on ethnic needs of course, but what we want are also things that everyone wants. If we get too engrained in the ethnic interests, it separates people and divides.

However, I do think that the growth of Korean Americans in office is a representation of how much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has grown as a whole politically. La Palma City may be small, but actually we are an important juncture for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 it's sort of the front lines of political empowerment to be honest. We have representation of Korean Americans in different levels of government, with Michelle Steel on the



(Photo courtesy of Peter Kim)

Orange County Board of Supervisors for the 2nd District, Young Kim as the Assemblywoman for the 65th District, and myself and Steve Hwangbo as members of La Palma City Council. Where else in the country is it that way? In that sense, I think we've made a lot of great strides.

**Q:** According to Pew Research Center's most recent study, Asian American voter turnout seems to still lag behind that of other ethnic groups.

**A:** I think that people may not vote because there is often so much to vote on, and people don't know how to vote. But now, I think it's been made so much easier to vote because of the permanent absentee ballots. The ballots and packets are all even available in Korean now. My parents get their ballots in Korean. So my argument is, there's no excuse not to vote anymore.

Every vote really counts. We've had very close elections before. Even with David Ryu (LA City Council Member), he scraped by in the primaries with a very small difference of votes. Many candidates have won by very narrow margins. If everyone votes, the political empowerment grows. You have to do your part in order to aggregate and make the community stronger.

To have a voice in the whole process, to have a seat at the table -- What is it that you want? The only way you could voice that is through voting.

**Q:** You are running for re-election as La Palma City Council Member. What's on your platform for this year?

**A:** La Palma City's needs are not unique. We're going through fiscal difficulties. Oil prices are very low. So right now we're focusing on, how can we, in the long term, be financially sustainable? In terms of other priorities, we're also focusing on infrastructure, public safety, and financial stability. We're a small city, so economies of scale are not on our side. Voters will have to determine what is a priority for them. We have to figure out, what can we do to maintain the same level of service? So voters would be asked, 'Are you willing to pay more to maintain the same level of service? Or are the services not important enough that you would want to pay more for them?' Our council right now is discussing these issues. And as a Council Member, I would say we've done a lot of things to reduce cost, and we have been doing everything we can.

## Pastor in China Sentenced to 14 Years in Prison

*Government-approved pastor was active in opposing removal of crosses*

A Chinese pastor who was involved in protesting against removing the cross atop his church has been sentenced 14 years in prison, on charges of corruption, swindling, and gathering people to disturb social order, according to media reports.

Bao Guohua was a government-approved pastor and had resisted the cross removal campaign in Zhejiang province, where about 1,200 crosses were removed during the past two years. His wife, Xing Wenxiang, was sentenced to 12 years for similar charges.

About 10 people from their church were also charged, but the Chinese media has not released details of their sentences. The court confiscated 600,000 renminbi (about \$92,000) each from Bao and his wife, and fined Bao with \$15,000 and about \$14,000 from his wife.

The media reported that their sentences were the most severe, which have not been imposed on any of the church leaders in China as yet.

The Chinese government has refused to relent in taking down crosses, and

maintains that the crosses violate building codes. However, Christian activists say that authorities want to suppress Christianity in Zhejiang, which is also referred to as "China's Jerusalem."

Last year, the authorities reinforced a ban on admitting non-atheist members in the Communist Party in Zhejiang province.

As the cross removal campaign in Zhejiang started, many of the buildings were also deemed "illegal structures" and razed to the ground.

The government's crackdown on Christianity in China continues with the arrest and detention of several clergy members and lawyers defending churches and protesting against the removal of crosses.

This week, Zhang Kai, a prominent Christian lawyer who took up cases of cross removal, was compelled to confess on a local television station that he took money from China Aid director Bob Fu to defend churches in his capacity as a lawyer, and was trying to "change China's political system." Zhang was arrested a day before his

meeting with US ambassador-at-large David Saperstein in August last year.

Responding to Zhang's "confession", China Aid director Bob Fu released a statement saying, "Although China Aid is mentioned in the shameful Chinese Communist Party's official propaganda as an 'overseas force supporting Zhang Kai's legal defense work,' we will never be intimidated nor cease to continue to promote religious freedom for all in China."

In January this year, Gu Yuese, pastor of Hangzhou city's Chongyi Church, was arrested, who too had protested the removal of crosses in Zhejiang province. His wife, Zhou Lian Mei, was informed by the city police that he was detained on suspicions of swindling. Chongyi Church is the largest church in China with over 10,000 congregants, and is government-approved.

"Increasingly, we feel God's good intentions in this storm," Mei said after the incident. "It will refine every impurity in our ministry team to the greatest extent and compel us to love the Lord and people more purely."

### Local Churches and Ministries

#### Christianity Daily

A ministry through journalism



For questions about advertising and donations  
T.(213)739-0403 F.(213)402-5136

Sunday Services: 9 AM & 11:15 AM  
Children's Ministry: 9 AM & 11:15 AM  
Youth Group Service: Sundays at 11:15 AM

PASTOR KEITH PARK

#### Church of Southland

1380 S. Sanderson Ave, Anaheim, CA 92806  
T. (714) 209-7349 / churchofsouthland.com



Sunday Services: 9 AM, 11 AM, and 2 PM  
Youth Services:  
Sundays at 11 AM, Fridays at 7:30 PM  
Sunday School: Sundays at 11 AM

PASTORS DAVID LEE &  
SUNG HONG

#### Cornerstone Church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www.cornerstonetchurch.com



Brea Campus Service Times: 9:30 AM, 11:30 AM  
Irvine Campus Service Time: 10:30 AM

PASTOR STEVE CHOI

#### Crossway Community Church

Brea: 695 Madison Way, Brea, CA 92821  
Irvine: 100 Honors, Irvine, CA 92620  
T. (714) 529-5551 / crossway-church.com

PASTOR TIM PARK

Sunday Services: 9 AM & 10:45 AM  
Children's Ministry Services: 9 AM & 10:45 AM  
Youth Services: Sundays at 9 AM, Wednesdays at 6:30 PM  
College Services: Sundays at 10:45 AM

PASTOR JAMES KWAK

#### First Presbyterian Church of OC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1-2029 / www.oc1church.com



Sunday Service: 9:30 AM  
Children's & Youth Services:  
11:30 AM on Sundays, 8:00 PM on Fridays

PASTOR RONNIE PARK

#### Good Stewards Church

2701 S Woodgate Dr, West Covina, CA 91792  
T. (626) 913-6611 / www.gscl.org



Sunday Services: 9 AM & 11 AM  
Bible Studies: Wednesdays at 7 PM  
Prayer Meetings: Tuesdays at 11 AM, Saturdays at 9 AM

PASTOR SAM KOH

#### Hillside Church

2241 N. Eastern Ave, Los Angeles, CA 90032  
T. (323) 909-9062 / www.hillsidechurch.org



Sunday Services: 9:45 AM

PASTOR PHIL KIM

#### The Home Church

19271 Colima Rd Suite A/B,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384-1393 / thehomechurchrowland.com



Sunday Services: 11:30 AM

PASTOR HENRY LEE

#### Los Angeles Full Gospel Church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www.crlclf.org



Sunday Services: 9 AM & 11 AM  
College Group Meetings:  
Sundays at 1:30 PM, Fridays at 8 PM

PASTOR STEVE CHANG

#### Living Hope Community Church

1215 W. Lambert Road, Brea, CA 92821  
T. (562) 694-2100 / www.livinghopecc.org



Sunday Services: 10:30 AM  
Children's and Youth Services: 10:30 AM, 12:15 PM  
College Services: Sundays at 12:15 PM

PASTOR KIWON SUH

#### New Life Vision Church

4077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9  
T. (323) 373-0110 / www.nlvc.org



Sunday Services: 1 PM

PASTOR DANIEL HAN

#### Restore Fellowship

2525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  
T. (213) 487-3920 / www.ladongsan.com



Broadway Campus Sunday Services:

9:45 AM, 11:15 AM, 12:45 PM

Jefferson Campus Sunday Services:

9:30 AM, 11:30 AM

PASTOR MICHAEL LEE

#### Young Nak Celebration Church

Broadway: 1721 North Broadway, LA, CA 90031  
Jefferson: 150 W. Jefferson Blvd., LA, CA 90007  
T. (323) 227-1414 / www.ynccla.org



**Puente Hills Hyundai  
SUPER STORE**

소비자 만족도 서부지역 1위! • 미국에서 가장 큰 단일 현대 딜러! • 미국에서 에쿠스를 가장 많이 파는 딜러!

## Hyundai Seize the Moment Sales Event

**NEW**  
**2016 HYUNDAI ELANTRA SE**  
Lease It For **\$58<sup>+Tax</sup>**

**All In Stock With MSRP \$19,375**

36 Months Closed End Lease. \$3,999 Due At Signing, \$2,000 Lease Cash, \$500 Competitive Owner Coupon, \$500 Military Rebate, \$400 College Grad Rebate, On Approved Credit. 12,000 mile/year

**"THE EXCITING APPEAL OF ELANTRA SPORT"**

**JUST ARRIVED**  
Get Better Deal On 2016 Hyundai Find Out Why!!

**NEW**  
**2015 HYUNDAI SONATA LIMITED**  
With Ultimate Technology Pkg

**"DESIGN RENEWED BY INNOVATION"**  
Panoramic Sunroof, Navigation System W. 8" Touch Screen Integrated Memory System For Driver Seat & Side Mirror & More!!

Lease It For **\$88<sup>+Tax</sup>**  
**All In Stock With MSRP \$32,730**

36 Months Closed End Lease, \$5,999 Due At Signing, \$4,000 Lease Cash, \$500 Lease Loyalty Cash, \$500 Military Rebate, \$400 College Grad Rebate, On Approved Credit. 12,000 mile/year

**NEW**  
**2016 HYUNDAI EQUUS SIGNATURE**  
Lease It For **\$399<sup>+Tax</sup>**

**All In Stock With MSRP \$62,450**

36 Months Closed End Lease. \$3,999 Due At Lease Signing, Lease Cash \$8,500, Competitive Owner Coupon \$1,500, Military Rebate \$500, College Grad Rebate \$400, On Approved Credit. 12,000 mile/year

**"A PERFORMANCE VEHICLE WRAPPED IN LUXURY"**

**NEW**  
**2015 HYUNDAI GENESIS SEDAN 5.0L V8 Engine**  
Lease It For **\$299<sup>+Tax</sup>**

**All In Stock With MSRP \$52,705**

36 Months Closed End Lease. \$3,999 Due At Lease Signing, Lease Cash \$4,250, Competitive Owner Coupon \$1,500, Military Rebate \$500, College Grad Rebate \$400, On Approved Credit. 12,000 mile/year

**"It's an honor to be nominated 2015 North American Car Of The Year Finalist"**

찰리 정 626.513.4981  
스티브 장 626.723.3336  
저스틴 길 626.723.3584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See dealer for LIMITED WARRANTY details.

**HYUNDAI**  
**1-888-644-7114**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LA한인타운과 오렌지카운티에서 20분거리  
[www.phhyundai.com](http://www.phhyundai.com)

**HYUNDAI Assurance**